



“미래가 불안해...” 현금 쌓는 기업들

상장사 현금자산 1년새 13兆 '쑥'
3년 연속 늘어난 기업 249곳 달해
무역분쟁·금리인상 불확실성 대비

현금자산 비중을 늘리는 상장사들이 늘고 있다. 무역분쟁과 금리인상 등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13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1년(2017년 3분기~2018년 3분기)간 국내 상장사 1510곳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규모가 220조6837억 원에서 233조4754억 원으로 약 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장사들이 보유한 현금자산 규모는 2015년부터 매년 불어나 지난해까지 3년간 27% 증가했다. 오태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경기둔화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 자금 조달 비용이 급격히 높아졌다”며 “오히려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주가를 방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요건 악화로 상반기까지는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3년 연속 현금자산이 늘어난 상장사는 249개사로, 증가율은 평균 175.57%이다. 이 가운데 154곳은 평균 30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은 최근 1년간 현금자산이 늘었다. 삼성전자가 보유한 현금자산은 30조7882억 원에서 33조881억 원으로 7.47% 늘었다. 같은 기간 네이버(75.03%), SK하이닉스(108.38%), 셀트리온(12.08%), SK텔레콤(90.96%), LG화학(72.24%), 포스코(9.54%) 등도 동반 증가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현금자산 규모 추이
(단위: 억 원)

종목명	2016년	→ 2017년	→ 2018년 3분기
삼성전자	321,114	305,451	330,881
SK하이닉스	6,138	29,500	23,404
셀트리온	2,684	4,192	3,691
현대차	78,901	88,215	93,364
LG화학	14,744	22,493	30,669
POSCO	24,476	26,125	32,374
한국전력	30,514	23,697	29,250
NAVER	17,262	19,076	34,523
SK텔레콤	15,052	14,577	27,636

※출처: 에프앤가이드

종목별로는 의료용품 판매기업 우리들휴브레인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2017년 7억672만 원에 불과했던 현금자산은 이듬해 278억639만 원으로 3834.55% 늘었다. 제넨바이오(2600.35%), 이에스에이(2298.09%), 바이오제네틱스(1976.15%), 삼화전자(1500.03%), 현대백화점(970.71%) 등도 증가폭이 컸다.

증권사는 올해도 현금자산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며 컨센서스(시장추정치)를 올리고 있다. 4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는 상장사 225곳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추정액은 233조6178억 원이다. 한국항공우주(38.93%), 강원랜드(29.60%), CJ대한통운(19.68%) 등이 상향 조정됐다.

이재만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성장성이 둔화되고 부채가 늘어나면서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 보유 현금을 활용해 자본 효율성을 개선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현금성 자산이나 잉여현금이 많고 부채비율이 비교적 적은 곳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미세먼지 오늘 더 심각...“마스크 꼭 쓰세요” 올해 첫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된 13일 경기 김포시의 한 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월요일인 14일에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수도권에서 이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지난해 1.3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지역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경유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오승현 기자 story@

“투자·고용 부진 이어 소비 위축...반도체 등 수출까지 악화”

‘韓경제 비상’ KDI 경고음 더 높였다

설비·건설투자 일시적 반등 끝나
주력품 수출 꺾여 전망 밝지 않아

투자·고용 경기 부진이 그나마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온 소비·수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특히 대외 여건 악화로 반도체 경기가 하락하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발간한 ‘경제동향 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수출도 위축되는 등 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등 수출 여건도 점차 악화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관련기사 3면 우선 내수는 전반적으로 부진세다. 산업

활동에선 지난해 11월 광공업생산과 서비스업생산의 동반 부진으로 전산업생산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전월 6.9%에서 0.2%로 축소됐다. 건설업생산도 감소세가 이어졌고, 제조업 출하는 감소로 전환됐다. 이런 가운데 제조업 재고율은 전월 107.7%에서 112.3%로 급등했다.

소비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다. 11월 소매판매액 증가율은 9~10월 평균(2.8%)보다 낮은 1.0%를 기록했고,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7.2로 전월(96.0)에 이어 기준치(100.0)를 밑돌았다. KDI는 “소매판매액이 미미하게 증가한 가운데, 소비자심리지수도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판단했다.

투자는 반도체설비 증축에 따른 일시적

반등이 끝나고 다시 하락으로 전환됐다. 설비투자의 선행지수인 12월 자본재 수입액도 전년 동월 대비 24.7% 줄었다. 건설투자도 어렵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반도체(-8.3%), 석유화학(-6.1%) 등 주력품목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12월 수출은 전월 4.1% 증가(전년 동월 대비)에서 1.2% 감소로 전환됐다. 선박증가세(26.3%)도 이를 상쇄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번 경제동향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반도체의 이달(1~10일) 수출액도 전년 동월 대비 27.2% 급감했다.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확대와 세계 경제 실물지표 부진 등이 부정적 변수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서울시, 상반기 현대차 GBC 인허가 끝낸다

“5개월 이내로 줄여 조기착공 적극 지원”

서울시가 현대자동차 신사업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의 조기 착공을 적극 지원한다. 현대차 GBC 사업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27년간 264조 8000억 원에 달하고 일자리 121만 5000개가 창출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현대차 GBC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후속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차 GBC 사업계획은 7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분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 사업시행자인 현대차가 인허가 인계유발 저감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서울시는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관리하는 조건이다.

현대차 GBC 착공까지 서울시 인허가 절차만 남았다. △건축허가 △굴토 및 구조심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

정 고시로 모두 서울시 인허가 절차다. 서울시는 최대 8개월(건축허가 3개월, 굴토 및 구조심의 2개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3개월)에 이르는 인허가 처리 기간을 5개월 이내로 단축해 착공 시기를 앞당기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전망 속에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효과가 큰 현대차 GBC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 국가적 차원의 경제 활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GBC 건설·운영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27년간 264.8조 원으로 예상된다. 또 직간접 일자리 121만 5000개를 창출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시 전체 취업자 수 503만 명의 4분의 1에 달한다.

김진희 기자 jh6945@

재계, 정부 ‘보여주기식 親기업행보’ 피로감

文대통령, 내일 기업인과의 만남
정책 기조 변화없이 스킨십 확대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하루 앞두고 있는 재계가 정부의 ‘남원북철(南轉北輸)’ 행보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 등 경제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고 못 박은 상황에서 청와대 관계자는 물론 여당 고위층까지 잇따라 대기업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 ‘소통’이 아니라 ‘압박’으로 느껴진다는 하소연이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15일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 등을 비롯해 대

기업 20개, 중견기업, 지방상의 회장단 70여 명 등 120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놓고 재계 관계자는 “수레 끌 때는 남쪽으로, 수레바퀴는 북쪽으로 간다는 ‘남원북철’이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 너 대답만 하면 돼)’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는 한 치 흔들림이 없는데 재계 총수와 최고 경영자(CEO)들이 무슨 건의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소통’이라는 명분으로 생존 경쟁에 여념 없는 재계 고위관계자들이 줄줄이 정치권 인사들과 경제부처 장관들의 호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청와대 신년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4대 그룹 총수가 초청됐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삼성전자 수원사업

장을 찾았다. 이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재계와의 만남을 추진 중이다. 경제부처 장관들도 대통령 뜻을 확인한 만큼 기업 현장 방문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계가 오히려 피로감을 호소할 정도다. B기업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노력해도 대기업이 안 움직인다는 비난이 나올까 우려될 정도”라고 털어놨다.

특히 정부 일정은 갑작스럽게 잡히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기업 총수나 CEO들은 종전에 잡았던 비즈니스 일정을 취소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해외 출장이 빈번한 기업 총수나 CEO들 입장에선 여간 난처한 일이 아니다. 15일 문 대통령과 기업인의 만남 역시 13일까지도 정확한 시간이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록 기자 syr@·하유미 기자 jscs508@

줄무늬 양말 신은 최태원 회장 “행복 창출, 주저 말라”

SK그룹 신년 ‘행복토크’

“회장님의 위라벨 점수는 몇 점인가요?” “음..., 짱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까지 그렇게 일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곤대죠.”

구성원과 사회의 행복을 강조하는 최태원 SK 회장이 올해 신년회에서 약속한 대로 임직원들과 100차례 만나는 소통 행보에 들어갔다. 최 회장은 이번 토크에서 임직원들과 격의 없고 진솔한 의견을 나눈 큰 호응을 얻었다.

13일 SK에 따르면 최 회장은 8일 서울 종로구 서린사옥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구성원들과 ‘행복토크’ 시간을 가졌다. SK 수펙스추구협의회, SK이노베이션 등 서린사옥 내 구성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형식과 내용면에서 중점의 틀을 짰다. 모바일 앱을 이용, 현장에서 구성원들이 질문이나 의견을 즉석에서 올리면 이에 최 회장이 답하는 방식으로 사전 각본 없이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이노베이션 등 300여명 참석 형식 없이 90분 질의응답 소통 “구성원 행복이 사회 가치 창출 과감한 ‘퍼스트 펑귄’ 많아져야”

최 회장은 “직장생활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고 털어놓지만 “본인 스스로의 행복 창출에 주저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자신의 화려한 줄무늬 양말을 선보이며 “이렇게 양말 하나만 변화를 줘도 주변에서는 뭐라 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 행복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추진하라”고 조언했다. SK는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돼야 사회적 가치가 원활하게 창출될 수 있고, 이 같은 구성원의 단합된 힘과 실력을 바탕으로 어려운 경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다.



최태원 SK회장이 8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행복 토크’에서 구성원들과 행복 키우기를 위한 작은 실천 방안들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제공 SK

한 직원은 “애 셋 아빠입니다. 남성 육아 휴직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뭔가요?”라는 질문에 최 회장은 “여러분, 애 셋 아빠에게 일단 박수!”라고 외치

기도 했다. 이어 그는 “육아와 일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좋은 ‘상품’을 함께 고민해 만들어 봅시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또 “팀원이 팀장을, 팀장이 임원을 택해

일하는 인사제도 도입은 어떻게?”라는 질문에는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과감한 발상을 하는 퍼스트 펑귄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본다”는 최 회장의 대답이 나오기도 했다. 퍼스트 펑귄은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용기를 내 먼저 도전함으로써 다른 이들에게도 참여의 동기를 유발하는 선발자를 일컫는다.

이날 행사는 근무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에 열려 참여도가 높았다. 임원들도 자리가 부족해 계단이나 바닥에 앉아 제공된 김밥과 샌드위치를 먹으며 토론에 참여했다. 최 회장은 “여러분 업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일부러 점심시간을 잡은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최 회장은 행사장 바닥에 앉아 있던 직원들 옆에 나란히 앉아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구성원과 올해 100회 소통하는 것이 제가 행복 만들기를 실천하는 방법이며, 여러분들도 각자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달성함으로써 다 같이 ‘행복 트리(tree)’를 만들어 가자”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두산그룹〉

혁신성장 이끈 박정원 회장, 3년 연속 ‘1조 클럽’ 정조준

지난해 경영학자들이 뽑은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자’는 박정원(사진) 두산그룹 회장이었다. 2016년 4세 경영 시대의 첫 주자로 나선 이후, 도전·혁신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은 물론 성장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두산은 저성장 국면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 매각 등 재무구조 개선 작업과 체질 변경에 따른 실적 개선 등을 기반으로 지난해부터 성장에 재시동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계는 박 회장이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을 뚫고 3년 연속 1조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산업차량 국내의 점유율 확대 연료전지사업 작년부턴 성장세 “신사업 속도감 있게 키울 것”

그룹 성장의 흐름은 ㉞두산의 성장과 궤를 같이한다. 박 회장 취임 당시만 해도 두산은 구조조정 비용에 따른 실적 부진에서 벗어난 직후였다. 구조조정 후유증도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7년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4년 만에 ‘1조 클럽’에 재입성했다. 지난해에 1조 원대 영업이익이 확실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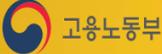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두산의 지난해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전년보다 19.3% 늘어난 1조3775억 원이다. 이는 수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자사업 부문에서의 높은 수요, 고부가가치 제품 집중 등으로 최고 실적을 달성했으며, 산업차량 부문에서 글로벌 판매량 확대는 물론 내수 점유율이 상승한 덕분이다. 또 모트물사업 부문

은 중국 수요가 늘어났으며, 유통 부문은 사업 안정화에 접어들었다.

일단 재계는 올해도 박 회장이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자 부문 수요 증대와 산업차량 매출처 다변화 효과 지속 외에도 신성장 산업에서 성과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 회장이 오랜 기간 관심을 가져온 연료전지 사업은 2017년부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상반기에만 약 8400억 원 규모의 수주를 달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가 넘는 성장이다. 연료전지 사업은 박 회장이 2014년 두산 회장 시절부터 주도한 사업으로

남다른 애정을 보여왔다. 이미 2016년 3월 그룹 회장 취임식에서 “연료전지사업을 글로벌 넘버원으로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던 박 회장은 올 초 신년사에서 “연료전지 사업 등 그룹의 신사업을 속도감 있게 키울 것”이라는 포부를 재차 강조했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적 개선의 열쇠를 쥐고 있는 연료전지는 수주 잔고 1조 원을 넘었고 추가 수주도 기대되고 있다”며 “올해 말 초도생산에 들어갈 전지박은 내년 이후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연료전지 실적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장기 성장세도 기대된다”면서 “전자사업 부문은 전지박 사업 개시는 물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및 전극 사업 성장이 실적을 견인할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허유미 기자 jscs508@






편견을 걷어내면 능력이 보입니다!

장애가 아닌 능력을 바라볼 때,
함께 일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취업 전 준비부터 취업 후 적응까지 체계적 지원



직업능력개발
장애인이 능력을 키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기업지원
기업의 장애인고용 준비부터 관리까지 체계적 지원



연구개발
장애인고용의 미래를 여는 연구개발 사업 수행

전국대표번호

1588-1519

www.kead.or.kr

수출 덜컹대는데... '6000억 달러 착시'에 빠진 정부

〈지난해 수출액 신기록〉

'동상이몽' 경제동향

정부는 최근 경기 흐름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활력 제고에 올인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다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수 둔화와 수출 대외조건 악화를 우려하는 것에 비해 기획재정부의 판단은 다소 낙관적이어서 온도차가 감지된다.

투자와 고용이 어렵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설비·건설투자는 장기적 침체에 빠졌고, 고용은 지난해 연간 증가 폭이 9만 7000명으로 축소됐다. 굳이 두 기관 간 차이를 찾자면 부진의 수준을 조정으로 보느냐, 둔화로 보느냐 정도다.

소비와 수출에 대한 평가가 상반된다. KDI는 13일 '경제동향'에서 "소매 판매액의 증가 폭이 축소되고 투자 감소 폭은 확대되는 등 내수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라고 판단했다. 수출에 대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등 수출 여건도 점차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기재부는 11일 '경제동향'에서 "전반적으로 수출·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6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소매판매액이 2개월 연속 증가했다는 게 근거다. 이를 적극적 재정운용과 함께 긍정적 요인으로 제시했다. "반도체 업황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단서를 달긴 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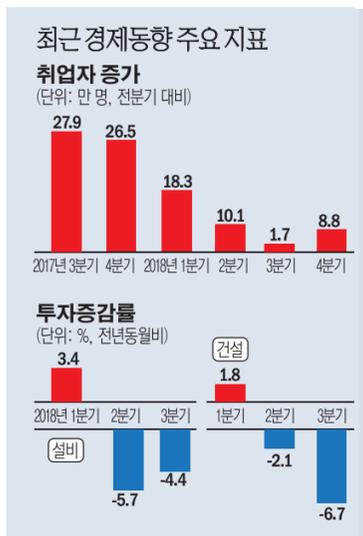
기재부, '반도체 불확실성'만 지적 KDI, 투자·고용 침체 이전 없지만 "내수부진·수출 악화" 상반된 의견

"정부마저 우려 발표면 시장 패닉 실제 낙관 아닌 희망사항 가까워"

지만, 상대적으로 경기를 낙관적으로 봤다. 전반적으로 KDI의 인식이 보다 무겁다. 지난해 12월 경제동향과 비교하면 수출에 대한 판단은 '증가세 완만'에서 '위축'으로 변경됐다. 경기에 대한 '점진적 둔화'에서 '둔화 추세 지속'으로 바뀌었다. 경기 하강에 대한 KDI의 우려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KDI의 판단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소비에 대한 우려하더라도, 수출은 지난해 12월 27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선 데 이어 이달(1~10일)에도 전년 동월 대비 7.5% 급감했다. 특히 지난해 수출 증가세를 견인하던 반도체와 석유제품이 각각 27.2%, 26.5% 줄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소비는 견조한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수출은 하락세로 보는 게 맞을 것"이라며 "반도체가 꺾이고 전체 수출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이는 장기적인 추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박 등 일부 품목



이 회복 기미를 보이고는 있지만, 반도체 등 주력품목의 감소 폭을 상쇄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기재부의 판단은 체감경기보다 낙관적이다. 정부마저 비관적이면 시장의 투자·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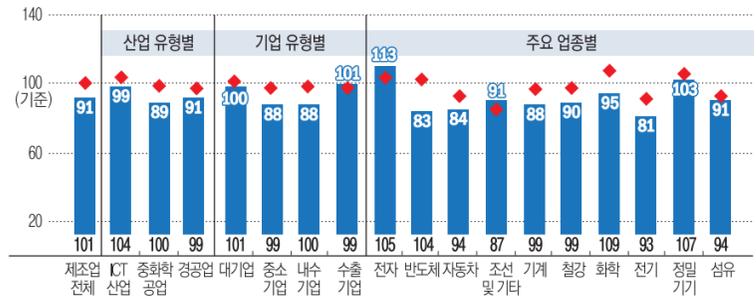
같은 맥락에서 정부의 낙관적인 판단을 '낙관적인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간으로 보면 지난해 소비와 투자 모두 통계상으로 증가세를 유지했고, 정부도 그걸 근거로 견조한 흐름이라 판단한 것 같다"며

"다만 정부도 작년과 올해 성장률 전망을 모두 2.6~2.7%로 내려 잡았고, 수출도 지난해보다 못할 것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실제 견조하다기보다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로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제조업의 업종별 2019년 매출액 전망 BSI



정부마저 걱정하는 '반도체 쇼크' 車·조선·철강 등도 두 자릿수 하락

'악화일로' 제조업 BSI

올 BSI 91...전년보다 10P 뚫 반도체 연간기준 21P나 급감

올해 제조업 경기가 지난해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그동안 상승장구해 온 반도체 산업의 경기가 대폭 꺾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560여 개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올해 제조업 매출 전망 BSI가 전년보다 10포인트(P) 낮은 91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다는 것을 뜻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산업유형별로는 중화학공업(89)이 가장 부정적이었다. 이어 정공업(91)과 ICT산업(99)도 좋지 않다.

기업유형별로는 중소기업(88)과 내수기업(88)이 대기업(100)과 수출기업(101)에 비해 더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업종별로는 전자(113)와 정밀기기(103)만이 100을 넘겼을 뿐 반도체(83)를 비롯해 자동차(84), 기계(88), 철강(90), 화학(95) 등 대다수 업종이 100

을 밑돌았다. 지난해 수출 등 우리 경제를 주도했던 반도체는 전년보다 21P나 하락했다.

올해 1분기만 기준으로 했을 때도 전분기보다 제조업 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1분기 시황 전망은 92, 매출 전망은 95로 전분기에 비해 각각 9P, 10P 줄었다. 3분기 연속 하락세다. 내수 전망도 전분기 93에서 84로, 수출 전망도 96에서 93로 낮아졌다. 설비투자(95)와 고용(95) 전망도 100을 밑돌았다.

업종별 전망은 대다수 업종이 100을 하회했다. 특히 반도체(90)를 비롯해 자동차(78)와 조선·기타운송(88) 등 운송장비업, 철강금속(77) 등은 전분기보다 두 자릿수 하락했고, 전자(91)와 섬유(91)만이 소폭 반등했다.

현재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작년 4분기 시황 현황 BSI와 매출 현황 BSI는 각각 87, 88로 전분기 수준(88-88)을 유지했다.

내수(86)가 수출(93)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나 전분기 대비로는 수출이 1P 줄었다. 설비투자(96)는 전분기와 같았으나 고용(95)은 3분기 만에 하락했다.

경상이익(84)은 2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자금사정(83)은 3분기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당신의 모든 순간에 가족 모두의 순간에 한화손해보험이 함께합니다 더 나은 나를 찾을 수 있게 가족의 행복을 더 지킬 수 있게

더 잘 살기 위해 Life as a service

한화손해보험

Lifeplus 광고모델 이병헌

가족을 지키는 모든 방법

전가족보험

포브스 선정 2019 디지털 트렌드 10

5G

4G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수십 배 이상 빠른 5세대 이동통신. 초연결사회의 고속도로로 불린다.

챗봇

일명 채팅하는 로봇. 인공지능이 고객의 질문에 대신자로 답하거나 안내하는 서비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연결된 중앙 컴퓨터에 저장해놓고 필요할 때 접속해 사용하는 기술.

블록체인

온라인 거래 내역을 모든 사용자의 컴퓨터에 분산 기록하는 공공 거래장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가상화폐가 만들어졌다.

데이터 애널리틱스 · 인공지능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이 활발해지고 있다. 데이터 기반 분석도 인공지능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한다.

GDPR (EU 개인정보 보호규정)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판매 및 반출을 금지하고 고객이 원할 땐 삭제해야 하는 규제안.

증강현실

실제 사물에 가상의 이미지나 정보를 덧붙여 보여주는 기술. 포켓몬고가 대표적인 게임.

에지 컴퓨팅

클라우드 시스템의 과부하를 막는 분산형 소형 서버 시스템. 자율주행 등 사물인터넷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를 위해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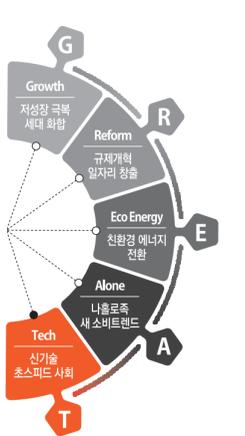
소비기반 ICT 서비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소비 기반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면에 나서는 CEO

올해 미래 투자에 관한 CEO의 선택이 기업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

지능형 기기들이 협력하는 '자율 사물' 시대로... 국경 사라진 '인재영입 전쟁'...기업 미래 가른다



〈끝〉 세상을 바꾸는 신기술

2007년 등장한 애플의 아이폰은 글로벌 IT 시장의 판도를 바꾼 제품으로 평가받는다. 아이폰으로 시작된 스마트폰 혁명은 기존의 MP3 플레이어 업체들을 고사시켰다. 스마트폰 혁명은 태블릿 PC까지 이어져 급속도로 팽창하던 세계 PC시장에 제동을 걸었다.

스마트폰은 일자리를 없애기도 했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다. 스마트폰 대중화로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생겨났고, 유능한 개발자들이 여기에 몰렸다. 스마트폰 대신자로 시작한 카카오톡은 3000여 명의 직원을 거느린 현대기업으로 성장했다. 81개의 계열사를 거느리며 게임, 핀테크, 모빌리티, 콘텐츠 등의 다양한 사업영역을 아우르고 있다.

2019년 신기술은 이전보다 넓은 분야에 서 더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이다. 이 기술들은 이미 우리의 일상 곳곳을 파고들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집 밖에서 보일러와 전등을 켜고 끌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를 호출할 수도 있다. AI 스피커를 활용해 배달음식을 주문하고, TV 채널을 돌리는 것도 가능해졌다. 특히, 5G 상용화가 본격화되면서 사물 간의 연결성은 더 강화되고 있다.

'알파고'로 우리에게 친숙해진 AI는 여전히 뜨거운 신기술이다. AI를 이용해 앱을 개발하는 'AI-드라이브 개발(AI-driven development)'은 떠오르는 산업으로



앤솔로빅스사의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가 회사 설립자 데이비드 앤솔에게 사과를 먹여주고 있다. 소피이는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해 사람과 많이 얘기를 나누도록 더 자연스러운 대화 가능하다. 연합뉴스

주목받고 있다. 업계는 2020년까지 새로 개발되는 앱 가운데 40%는 AI 전문가와 물이 여러 개 모여 협력하면서 다양한 기능을 구사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음식 배달을 포함한 택배 분야에서 특히 높은 활용성이 점쳐진다.

'증강 애널리틱스(augmented analytics)'도 주목받는 분야다. '사용자층의 확장이 잠재된 빅데이터 기반 기술'을 통칭하는 증강 애널리틱스는 △인력·재무·자산 관리 △판매 △마케팅 △고객 대상 서비스 등에 활용이 가능하며,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없어도 뛰어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의 등장을 가능케 할 전망이다.

리서치 기업 가트너는 2020년이면 일반인 데이터 과학자 수 증가율이 전문 데이터 과학자 수 증가율의 다섯 배를 넘어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태성 기자 tkwon@

지난 40년 동안 매년 20%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발전해 온 반도체 산업도 가격 대비 성능이 월등히 향상되면서 IT 산업 발달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카메라나 첨단 휴대전화, 인공지능 가전제품과 자동차 등의 신제품들이 등장하면서 반도체 산업은 '인공지능의 세계'로 향한 혁신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수소전기차, 자동차 배터리 등도 미래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다줄 신기술로 꼽힌다.

신기술을 확보한 국가가 미래 경제의 주도권도 거머쥐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기술력 강화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중국의 '골기'가 매서운 기세다. 중국은 저가 수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철강과 조선 분야를 잠식했고, 이어 디스플레이와 스마트폰 산업에서도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다. 반도체 역시 비슷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저가 불량 공세로 시장을 어지럽게 만들어 결국에는 또 앞설 수도 있다"면서 "정부는 기술 투자와 연구개발에 부담이 되는 규제는 줄이고, 기업은 유능한 연구개발 인력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꾸준한 기술 격차를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 인재 경쟁

CEO 줄줄이 실리콘밸리행 비전 제시하고 박사 영입 미팅

삼성, 퇴직 임원 교수로 예우

기술인력 유출 방지에 총력

구광모의 LG, 순혈주의 타파

SK는 'S급 교수' 초빙 공들여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선대 회장은 평생 '인재 제왕'의 원칙을 고수했다. 인사가 성공하면 기업은 당연히 성공한다는 확고한 철학을 지닌 사람이었다. 1957년부터 공채를 시작한 삼성은 이 회장이 회사 규모가 커져 일일이 신입사원들을 만나볼 수 없게 되기 전까지는 직접 면접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역시 "우수한 사람 한 명이 천 명, 만 명을 먹여 살린다"며 우수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2003년 제2의 신경영을 선포하면서 "천재 경영"을 화두로 내세웠다. 그는 빌 게이츠 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바로 '천재'의 예라며, 천재가 세 명만 있어도 삼성은 물론 한국 경제가 차원이 달라질 것이라고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에서 열린 '테크포럼 2018'에서 김현석 삼성전자 CE부문 사장이 현지 우수 인재들을 대상으로 세 시간제강을 하고 있다.

말했다. 빌게이츠와 스티브 잡스 전 애플 CEO는 만 명이 아니라 지구촌 70억 인구의 삶을 바꿀 것이다.

올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녹록지 않다. 이렇듯 필수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인재다. 날로 고도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초격차 인재를 찾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살펴본다.

◇**韓 산업계, 인재가 사라진다** = 삼성전지에서 전무를 지낸 A씨는 중국 회화에 반도체 설계 자회사 '하이실리콘' CTO(최고기술책임자)로 갔다. A씨는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 10나노 기술 개발의 주역이다. 화웨이와 당시 삼성전자 고위 임원 자리를 만들어 예우하기도 하지만 억부족 리움을 감추지 못했다. 수십억 원을 주고 스카우트해가니 막을 도리가 없었다는 후문이다.

A씨 사례처럼 중국 기

업들은 국내 기술인력 모시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LG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글로벌 IT기업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삼성전자가 중국 반도체 업체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임원에 대해 최근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런 위기감의 표현이다. 문제는 소송에 한계가 있다는 데 있다. '2년 전직 금지 약정'을 근거로 소송을 해도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논거 탓에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 반도체 기술을 지키기 위해 퇴직 임원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쓴다. 서울대학교 등 대학에 연구교수 자리를 만들어 예우하기도 하지만 억부족 리움을 감추지 못했다. 수십억 원을 주고 스카우트해가니 막을 도리가 없었다는 후문이다.

A씨 사례처럼 중국 기

업들은 국내 기술인력 모시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LG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글로벌 IT기업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삼성전자가 중국 반도체 업체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임원에 대해 최근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런 위기감의 표현이다. 문제는 소송에 한계가 있다는 데 있다. '2년 전직 금지 약정'을 근거로 소송을 해도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논거 탓에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 반도체 기술을 지키기 위해 퇴직 임원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쓴다. 서울대학교 등 대학에 연구교수 자리를 만들어 예우하기도 하지만 억부족 리움을 감추지 못했다. 수십억 원을 주고 스카우트해가니 막을 도리가 없었다는 후문이다.

A씨 사례처럼 중국 기

'스마트폰 혁명' 그 이상의 인공지능·5G 물결 본격화

누구나 앱 개발 가능해지고 로봇이 판단해 운전·배달

블록체인·증강현실도 주목



택배 상자를 실은 DHL 드론이 시험비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운수업 90% 사라져" vs "새 일자리 생긴다"

로봇 근로자 시대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지 여부를 놓고 여전히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에도 AI 관련 기술 발전은 AI가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쪽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AI기술의 발전이 가장 빠른 속도를 내는 곳은 '자율주행차'다. 지난해 12월 10일 경기도 화성의 자율주행차 시험도시인 '케이-시티(K-City)'가 완성돼 세계 최초로 5G 통신망 구축과 고속도로를 비롯해 도심, 주차장 등 사실상 실제 환경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해졌다.

이날 케이-시티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SK텔레콤, KT, 현대자동차 등 9개 업체와 기업이 제작한 자율주행차 12대가 도시를 달렸다. 작년 9월에는 자율주행버스 '제로서블'이 성남 판교 도로주행을 했다. 물론 시속이 아직 25km정

도로 느리고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져 상용화가 멀었다는 평가지만 자율주행버스로 출퇴근 하는 것도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이미 길거리 편의점과 카페 등지에서도 AI와 로봇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 제 1·2여객터미널에선 음성인식 및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ICT 기술이 적용된 로봇 '에어스타(AIRSTAR)'가 공항 안내를 돕고 있다. 경기도 화성 동탄의 한 카페에서는 스마트폰 앱이나 키오스크(무인 종합정보안내시스템)를 통해 음료를 주문하면 '로봇 커피 바리스타'가 직접 커피를 뽑아준다.

서비스 분야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도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작년 9월 말 일본 산업기술총합연구소(AIST)는 건축 현장 등에서 무게 11kg의 석고보드를 들어올려 벽에 나사고정하는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HRP-5P'를 개발했다. 빌딩·주택 시공, 항공기·선박 등 조립 작업의 자동화를 목표로 개발됐다. 국내에서도 인간의 위험한 작업을 대신하기 위한 목적으로 로봇이 개발되고 있다.

AI기술의 발달도 벌써부터 유통·물류·운수·제조업에서 현존하는 직업의 90%가량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업에서는 초기 자본 투입으로 연구 무효로 일하고, 임금 인상 등도 없는 AI와 로봇을 도입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로봇이 인간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로봇이 뱉어 가는 일자리보다 AI와 로봇 때문에 생겨나는 일자리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인 가트너는 "인공지능으로 인해 어떤 일자리는 사라지지만 2020년이 되면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없지는 일자리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본다.

곽도훈 기자 soqood@



일본 AIST의 휴머노이드 로봇 'HRP-5P'.

AI로 '제2의 네이버' 꿈꾸는 이통사 직원들

사내벤처 다시 탄력

네이버, 인터파크, G마켓 등 이름만 들어도 어떤 회사인지 알 수 있는 기업이다. 지금은 해당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이들은 사내벤처로 시작했다.

한동안 잠잠했던 사내벤처제도가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다시 주목받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정보통신기술(ICT)에 강점을 갖고 있는 이통통신사들은 앞다퉈 사내벤처 지원을 확대하며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내부 직원들은 사내벤처를 통해 '제2의 네이버'를 꿈꾸고 있다.

SK텔레콤은 사내 벤처 프로그램인 '스타트업(Startup)'을 통해 임직원의 아이디어를 발굴, 실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7년 12월



CES 2019 관람객이 올해 혁신상을 수상한 인공지능 피부 관리기 '루미니'를 시연해보고 있다. 루미니를 개발한 풀루랩은 삼성전자 사내벤처 C랩 출신이다. 사진제공 차이오IF&C

부터 시행한 이래 임직원 1000여 명이 참여했고, 총 400여 건의 과제를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모두 16건의 과제 개발이 완료됐고, 이 중 4명의 임직원으로부터 꾸러민 사내벤처가 제안한 '유전체·IT솔루션'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IoT·데이터 사업부 산하 TF

선 제공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분석하는 사업이다. 분석된 유전체 정보를 바탕으로 헬스케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8월 해당 기술을 바탕으로 정밀의학 생명공학 전문기업 마크로젠과 AI 유전체 분석 솔루션 개발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시너지를 진행 중이다. 같은 해 10월에는 삼성서울병원과 협약을 맺고 해당 기술을 제공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도 지난해 8월 사내벤처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신사업 발굴에 나섰다. 이 회사가 사내벤처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내벤처는 AI, IoT(사물인터넷), AR(증강현실), 로봇, 스마트 홈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에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 모델을 발굴한다. 운영 기간 종료 후에는 최종 평가를 통해 임직원에게 스타트업 창업 기회도 부여한다. 1년간 별도 TF 조직으로 운영된다. 사내벤처 팀당 최대 1억7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김보근 기자 nova@

송영복 기자 syr@

한은 “美 임금·고용, 중간층 무너져 양극화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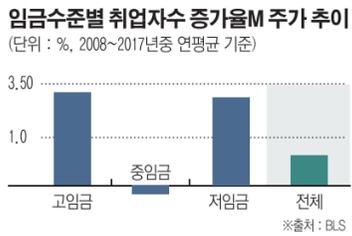
고임금 취업자 상위 1.8% 늘고 중임금은 0.2% 줄어
‘구조조정·기술발전·서비스업 성장’이 양극화 가속화
한국에서도 비슷한 현상... “재교육 훈련·지원 필요”

미국 노동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임금과 고용 측면에서 빠르게 양극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간 수준의 임금을 주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이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재교육 훈련 강화 등 중장기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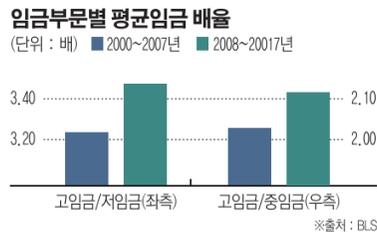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미국의 노동시장 양극화 배경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8년부터 2017년중 미국의 상위 25%에 해당하는

고임금과 하위 25%에 속하는 저임금 취업자는 각각 연평균 1.8%와 1.7% 늘었다. 반면 중임금 취업자 수는 되레 0.2% 줄었다. 이에 따라 취업자 수 비중은 같은 기간 고임금은 20.3%에서 22.6%로, 저임금은 17.4%에서 19.2%로 늘어난 반면, 중임금은 62.3%에서 58.2%로 감소했다.

임금상승률 역시 같은 기간 상위계층은 연평균 1.9% 증가해 중위(1.7%) 및 하위(1.5%)층보다 높았다. 이에 따라 고임금 부문 평균임금의 저임금 부문 대비 비율은



2000년부터 2007년중 3.32배에서 2008년부터 2017년중 3.43배로 확대됐다. 중임금과 비교해서도 2.03배에서 2.11배로 벌어졌다. 전체 임금근로자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고임금은 확대(2008년 36.7%→2017년 40.7%)된 반면, 중임금 부문은 크게 감소(54.0%→49.1%)했다. 이 같은 양극화는 대부분 산업에서 공통



적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2017년중 중임금 부문 취업자 수 비중 하락은 서비스업이 -4.0%로 가장 컸고 제조업(-2.6%), 건설업(-2.3%) 등 주요 산업에서 모두 떨어졌다. 한은은 이 같은 현상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일자리 구조조정과 기술발전에 따른 전문인력 수요확대, 의료 및 요양 서비스

업의 빠른 성장 등에서 원인을 찾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8년부터 2010년 중 숙련도가 낮은 일자리(중간숙련 -513만 명, 저숙련 -261만 명)를 중심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했다.

한국에서도 중간숙련 일자리가 축소되면서 일자리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으로 중임금 일자리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김상우 한은 미국유럽경제팀 과장 “양질의 숙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교육훈련과 저임금 취업자들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민생 안정·경제 활력 집중”

신년 회견... 사회적 대화 강조
민주, 손금주·이용호 입당 불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민주당의 올해 화두는 ‘평화·경제 그리고 새로운 100년’이라며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집중할 것”이라며 “무한한 책임감으로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2020년 총선 승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민주당은 국민의 삶과 관련된 적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 냈지만 이러한 변화가 국민이 느끼는 삶의 안정과 민생 경제 활력까지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며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

고 밝혔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와 안타깝게도 두 분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택시·카풀 문제, 유치원 3법에 이르기까지 공동체 전체의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전환의 시대를 넘어서기 위해 다시 힘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 △유치원 3법 관철 △지방자치법과 지방이양일괄법 처리 △검경 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수사처법·국정원법 개정·정치개혁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날 손금주·이용호 의원의 입·복당을 불허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원자 격심사위원회를 열어 “두 의원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 후보들을 낙선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등 우리 당 당원이 되기에 아직 충분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조현정 기자 jih@

작년 일자리안정자금 264만명 신청... 70%가 10인 미만 기업

총 2조5136억 지원

지나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에 근로자 264만 명이 신청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에 65만여 개 사업장, 264만여 명의 근로자에게 2조5136억 원(예산 2조9700억 원 대비 84.5%)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30인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월급 190만 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에게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을 지원했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117만 명(44.3%), 5인~10인 미만 58만 명(21.8%), 10~30인 미만 55만 명(21.0%), 30인 이상 34만 명(12.9%)으로 지원받은 근로자의 약 70%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 19.7%(52만 명), 제조 18.0%(48만 명), 숙박·음식 13.9%(37만 명), 사업시설관리 11.0%(29만 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 8.1%(21만 명) 순이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에서 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 25만 명에 대해 2682억 원의 안정자금이 지원됐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2조8188억 원으로 편성됐다. 지원 대상 예상 규모는 238만 명이다. 올해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210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면 월 소득 230만 원 이하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만원권 수명 10년 1개월
천원권은 오천원권 추월

세종대왕(만원권)의 유통수명은 121개월(10년 1개월)인 것으로 추정됐다. 또 퇴계 이황(천원권)의 유통수명은 52개월(4년4개월)로 율곡 이이(5천원권)(43개월·3년 7개월)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은행은 표본조사 방식으로 은행권 권종별 유통수명을 추정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를 2011년 조사(천원권 38개월, 5천원권 40개월)와 비교할 경우 천원권은 1년 2개월(14개월), 5천원권은 3개월이 각각 늘어난 것이다.

김성용 한은 화폐연구팀장은 “종주 주머니속에 넣던 것에서 지갑 사용이 보편화했고, 소액거래에도 카드와 간편결제들이 활성화되면서 이용빈도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뿌리산업에 ‘뿌리내리는’ 외국인 근로자

주조 등 7.9% 차지... 5년세 46% ↑

외국인 근로자가 뿌리산업에 빠르게 뿌리내리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가중된 경영 부담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뿌리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난 연말 펴낸 ‘2018년도 뿌리산업 인력현황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는 4만2443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7.9%에 이른다. 2013년 조사(2만9070명)보다 46% 늘었다. 뿌리산업은 제조업 가치 사슬 중 기본 공정을 담당하는 산업으로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개 업종이 여기에 속한다. 표면처리와 열처리 등 일부 분야에선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10%가

넘는다. 한국 경제 전체의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지난해 5월 기준 3.1%였다.

뿌리산업 기업들은 한국인보다 외국인 근로자를 더 많이 고용하려 한다. 뿌리산업 고용주들은 한국인 노동자는 현재보다 1.4% 더 고용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외국인 노동자는 3.7%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가장 큰 매력은 저임금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211만2000원으로 전체 평균 임금 242만1000원보다 13%가량 낮다. 5년 차 외국인 숙련공 임금도 212만1000원으로 한국인 기술직(239만9000원), 기능직(203만6000원) 신입사원 초봉과 큰 차이가 없었다. 기업으로서 한국인 신입사원을 채용하기보다는 외국인 노동자를 오래, 많이 채용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靑 “설 연휴 전 개각 힘들다”

고위 관계자 “검증 시간 부족”

청와대는 13일 설 연휴 전 개각은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설 전 개각을 하려면 청와대 검증 시스템에 비춰볼 때 이미 유력 주자들이 언론에 다 나와야 한다”며 “검증 과정에서 언론이 허마평을 다 실을 정도가 돼야 설 전에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월 초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그 전에 하려면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다. 설 전 개각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다.

비서진 개편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과학기술보좌관과 고용노동비서관, 의전비서관 등 공석인 비서관 자리를 채우는 선에서 인선을 매듭지을 것임을 시사했다.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한 비서관 인사는 5월까지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2기 청와대 참모진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신동민 기자 lawsdm@

황교안 15일 한국당 입당... 당권구도 ‘출렁’

친박 결집 가능성... 비박은 견제

황교안(사진) 전 국무총리가 15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기로 해 보수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차기 대권 잠룡으로 떠오른 황 전 총리가 중앙 정치 무대에 뛰어들면 한국당 전당대회는 물론 보수진영 재편, 차기 총선과 대선 등 정계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황 전 총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나라가 크게 흔들리고 국민들께서 정말 힘들어하고 계신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황교안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만을 생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한국당에 입당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총리를 지낸 황 전 총리의 등판이 확정되면 친박계와 TK(대구·경북), 전통보수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을지에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당 당권주자들이 황 전 총리를 견제하고 나선 이유다. 심재철 의원은 “정권의 시작과 끝을 함께한 황 전 총리가 박 전 대통령이 공격당하고 탄핵소추를 당할 때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고 비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2019년, 새로운 내일을 향해 첨단기술이 함께 뛰겠습니다

2018년을 함께 해주신 대한민국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SK하이닉스는 첨단기술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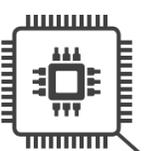


황금돼지야.
올해 잘 부탁해~~
나처럼 열심히 뛰려면
너 아마 다이어트 좀 해야 돼지?

그래 나도 올해엔
열심히
뛰어볼 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첨단기술을 만들고
[DDR5 D램 개발, 96단 4D 낸드 플래시 개발]



모두와 함께
잘 사는 방법을 고민하며
[M15 준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장애인 일자리 확충]

행복하고 안전한 세상을 꿈꾸고
[치매노인을 위한 행복 GPS 지원
독거노인 안전을 위한 시기기 실버프렌드 무상지원]



어떻게 사람들과 소통할까를
고민해왔던 2018년
[SK하이닉스 광고-대한민국 광고대상 통합 대상 수상]

불확실성 속 어닝시즌, 심란한 美 증시

셋다운·무역협상·브렉시트 등 연이어 몰려드는 불안요소들에 4분기 실적도 '먹구름' 근심 가득

미국 연방정부 셋다운(일시적 업무중지)과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 등 온갖 불안요소 속에 어닝시즌이 개막하면서 증시가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 뉴욕증시는 지난주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낙관론에 힘입어 상승했다. 다우와 S&P500지수 모두 주간 기준으로 2% 이상 올랐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3.5% 뛰었다.

이번 주는 씨티그룹과 JP모건체이스 등 주요 은행들을 시작으로 기업들이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닝시즌의 막이 열린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 집계에서 애널리스트들은 지난해 4분기 S&P500 기업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작년 7월 전망했던 18%에서 둔화된 것이다.

애플과 삼성전자 등이 연초부터 작년 4분기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어닝시즌에 대한 기대도 급격히 후퇴했다. 시장은 미·중 무역 전쟁과 글로벌 경기



글로벌 금융시장 금주 주요 이벤트 ※ 출처: CNBC

12일	미국 연방정부 셋다운 22일째로 사상 최장 기록
14일	씨티그룹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15일	JP모건체이스, 유나이티드헬스, 웰스파코, 델타항공 실적 발표 / 영국 하원,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
16일	뱅크오브아메리카(BOA), 골드만삭스, 블랙록 실적 발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베이지북 발표
17일	모건스탠리, 넥플릭스, 아마존닷컴 실적 발표
18일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준) 총재 연설
	미국 작년 12월 산업생산 / 1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예비치 발표

둔화 등으로 올해 1분기 실적 전망이 크게 약화할 가능성에 더 주목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레피티티브는 이번 1분기 S&P500 기업 순이익 증가율이 약 3.9%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상가상, 정치적 불확실성이 시장을 강하게 억누르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 셋다운은 22일째로 사상 최장 기록을 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트위터를 통해 "불법 이민에 따른 범죄가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민주당이 계속 장벽 건설 예산 편성을 반대할 경우에 대비한 국가비상사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

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주 셋다운 장기화에 미국이 최고 신용등급인 '트리플A(AAA)'에서 강등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셋다운이 앞으로 2주 더 이어지면 경제적 손실이 60억 달러(약 6조67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장벽 건설 예산 57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셋다운이 지속하면서 미·중 무역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은 류허 중국 부총리가 오는 30~31일 워싱턴을 방문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장관급 무역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셋다운 장기화에 오는 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막하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 총회 참석도 취소한 마당에 미·중 장관급 무역협상도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 앞으로 무역협상이 타결에 이르기까지 7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시간도 촉박하다.

양측은 지난주 차관급 실무협상에서 중국의 대미 수입과 시장 개방 확대 등에 동의했으나 중국 정부 보조금 중단, 지식재산권 보호 등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 변수도 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 바로 영국 하원이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 합의안을 놓고 15일 표결에 들어간다. 하원에서 부결되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불신임안 투표에서 노딜 브렉시트, 또는 제2브렉시트 국민투표에 이르기까지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사태가 된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주요 기업 구조조정 현황

재규어랜드로버	자동차	중국서 5000명 감원
GM	자동차	북미서 약 1만 명 감원
블랙록	금융	전 세계서 500명 감원
방코산탄데르	금융	폴란드서 1400명 감원
노무라	금융	유럽서 추가 감원
모건스탠리	금융	실적 부진자 정리
스테이트스트리트	금융	고위직 15% 감원

글로벌 기업 '허리띠' 업종불문 '감원한파'

경기 둔화·신사업 리스크 대비

새해 벽두부터 업종을 불문하고 감원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미국 민간 우주개발기업 스페이스X에서부터 헤지펀드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경기 둔화와 신사업에 따른 리스크 대비 차원에서 기업들은 미리 군살 빼기에 돌입하고 있다.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미국 민간 우주개발기업 스페이스X는 인력 10%를 줄이기로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그윈 샷웰 스페이스X 회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어려웠지만 반드시 필요한 결정이었다"며 "고객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행정 사이클을 이동하는 우주선과 우주에서의 인터넷 개발을 성공시키기 위해 스페이스X는 더 긴장된 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구조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본사를 둔 스페이스X는 약 600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으며, 주요 고객사는 미 항공우주국(NASA)과 미 공군 등이다.

자동차 업계도 칼바람이 거세다. 미국 포드자동차는 유럽에서 인력 감축 등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선다. 유럽 지역에서 공장 폐쇄와 비인기 차종 생산을 중단하면서 인력 감축 규모는 최대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포드의 유럽·중동·아프리카 담당 사장인 스티븐 암스트롱은 "우리는 유럽지역에서의 사업 변화를 위해 결단을 내리고 있다"며 "봉급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 등 모든 기능에 걸친 인력 감축을 통해 구조적인 비용 절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고급 자동차 제조업체인 재규어랜드로버도 중국에서의 수요 감소와 유럽에서의 급격한 디젤차 판매 감소로 최대 5000명의 인력을 줄일 것으로 전해졌다. 제너럴모터스(GM)도 지난해 11월 북미 5곳과 해외 2곳 등 7곳의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북미에서 1만여 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전 세계 인력의 3%, 약 500명을 정리하기로 했고, 방코산탄데르는 폴란드 부분에서 11%, 최대 1400명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노무라는 유럽에서 추가 감원을 결정했고, 스테이트스트리트 은행은 고위 경영진 15%를 줄이기로 하는 한편, 모건스탠리는 채권 주식 조사 등의 부문에서 실적이 부진한 직원을 해고하기로 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세계은행 74년 만에 첫 女총재 탄생하나

트럼프 장녀 '이방카' 등 거론

세계은행(WB)의 74년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재가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주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한 김용 총재의 후임으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김 총재는 지난 7월 임기를 3년 이상 남겨둔 상황에서 2월 1일자로 물러난다고 발표했다. FT에 따르면 김 총재의 후임으로는 헤일리 전 대사와 이방카 보좌관 외에 데이비드 몰패스 미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 마크 그린 미 국제개발처(USAID) 처장도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세계은행의 최대 출자국으로서 창설 이래 줄곧 총재를 지명해 왔다. 김 총재는 이례적으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첫 미국인이었다.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빈곤 퇴치를 지원하는 국제 금융기구이지만 세계은행 내에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국제 협력에 소극적인 미국 정부의 영향력이 강해질 것이라는 경계심이 팽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방카는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출연한 10억 달러 규모의 여성 기업가 지원재단 설립에 참여하였고, 헤일리 전 대사는 지난해 12월 유엔 주재 미국 대사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둘 중 누가 되는 트럼프 행정부에 친화적인 정책을 펼 가능성이 크다.

포춘은 국제통화기금(IMF) 역사상 처음으로 2011년 총재 자리에 오른 프랑스 출신 크리스틴 라가르드를 언급하며, 이제 세계은행도 여성 수장을 맞을 때가 됐다고 전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에티오피아, 조지아 등 2018년에만 3명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고, 국방, 무역 같은 주요 분야에서 활약하는 여성 리더들이 늘어나는 국제 추세에서 세계은행이라는 국제 금융기구에서 여성 수장이 나오지 말란 법이 있느냐는 것이다. 배수경 기자 sue6870@



'가정학대 탈출' 사우디 소녀 캐나다 망명 가정 학대를 피해 탈출한 사우디아라비아 소녀 리하프 무함마드 알-쿠논(가운데)이 12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피어슨국제공항에 도착해 크리스차 프릴랜드(오른쪽) 외무장관의 환대에 미소 짓고 있다. 알-쿠논은 부모가 강제로 결혼을 강요하자 해외로 도피, 태국에서 발이 묶였으나 캐나다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그는 전날 태국 방콕에서 대한항공 비행기를 이용해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나서 다시 이날 자정 무렵 환승편을 통해 캐나다에 들어왔다. 망명을 받아들인 캐나다와 사우디의 관계는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캐나다 정부가 지난해 8월 사우디 인권 상황을 비판하면서 양국은 지금까지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토론토/AFP연합뉴스

'차이나 쇼크' 쿠팡대 꺾인 애플 "20% 깎아드려요"

미 인터넷 쇼핑물 중심으로 인화... 수요 부진에 이례적 할인

애플이 중국에서 아이폰 가격을 최대 20% 인하했다. 업계에서 쿠팡대 높기로 자자하던 애플이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현지 수요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마지막 자존심까지 버린 것. 전자부품 등 다양한 산업에도 애플발 경고등이 켜졌다.

13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지신문에 따르면 징둥상청(京東商城) 등 중국 내 주요 인터넷 쇼핑물 사이트에서 아이폰 가격은 11일부터 종전보다 10~20% 떨어졌다.

징둥상청은 '아이폰'을 종전보다 600위안 저렴한 3999위안(약 66만 원)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최신 모델인 아이폰XR에 대해서도 14일부터 1000위안 이상의 가격 인하를 실시한다고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공지했다. 가전 유통 대기업 쉬닝그룹도 '기간 한정'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아이폰XS 등을 종전보다 1000



위안 정도 낮췄다. 한 인터넷 쇼핑물 대기업 관계자는 "애플로부터 도매가격을 인하해줄겠다는 통지가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중국 언론들도 애플이 8일 자국 거래처에 도매가격 인하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애플스토어나 다른 오프라인 매장에서 아이폰 가격은 그대로였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인터넷 한정가로 가격 인하를 실

시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향후 대응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애플은 그동안 브랜드 가치 유지를 위해 가격 인하는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이런 애플이 특히 신제품까지 할인 대상에 포함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애플은 중국에서도 1년에 한 번 있는 대규모 쇼핑 이벤트인 11월 11일 '독신자의 날'을 제외하면 할인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만큼 현재 애플이 처한 상황이 절박하다는 의미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일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2019 회계연도 1분기(작년 10~12월) 매출이 840억 달러로, 9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밝혔다. 쿡 CEO는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중국 경기둔화가 예상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 매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중국 사업은 6분기 만에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위성호-진옥동 '불편한 동거' 신한銀, 이달 말 '인사 딜레마'

진옥동 차기 신한은행장이 '인사 딜레마'에 빠졌다. 이달 말 예정된 부서장급 인사 권한이 임기가 두 달 남짓 남은 위성호 신한은행장에 있는 탓이다. 내부 조직력이 없는 진 내정자는 다음 정기 인사인 7월까지 어렵게 조직을 운영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달 말 부서장급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00~3000명 수준이다. 신한은행은 통상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 정기인사를 한다.

문제는 현재 위 행장과 진 신임 행장이 '불편한 동거'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신한금융지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자경위)는 지난달 21일 진옥동 신한금융 부사장을 차기 신한은행장으로 내정했다. 통상 신한은행장이 '2+1년'으로 3년 임기를 채운 것을 고려하면 위 행장이 사실상 '퇴출'당한 셈이다. 위 행장의 임기가 3월까지라 자경위가 1월 말께 열릴 것으로 보였으나 예상보다 빠른 교체였다.

업계에서는 임기를 마친 위 행장이 1년간 고문으로 활동한 뒤 차기 회장에 도전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신한금융 CEO 승계 프로그램에 따라 위 행장이 차기 회장 후보로 오를 수 있다. 위 행장도 지난달 26일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시간이 있는 만큼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위성호 은행장 진옥동 은행장 내정자

부서장급 인사 권한 쥔 '위 행장' 회장직 염두 '제 식구 심기' 우려

진 내정자, 내부조직 장악력 약해 7월 인사까지 운영 '가시밭길' 코드 인사 비판 가능성도 부담

위 행장 입장에서 1년 뒤 회장직 도전을 위해 이번 인사에서 자기 세력을 심어 놓고 가야 할 상황이다. 특히 '인사권'이 핵심이다. 신한은행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한 번 인사를 하면 2~3년 동안 같이 가야 한다"며 "위 행장은 자기가 하려고 하고, 조 회장과 진 내정자는 자기 사람을 넣고 싶어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진 내정자는 난감한 상황이다. 다음 정기 인사는 7월이다. 중간에 소폭 인사를 할 수 있으나 '코드 인사'라는 비판을 들을 가능성이 크다. 진 행장은 1986년 11월 입행한 이후 일본 오사카 지점장, SBJ 은행(신한 일본 현지법인 은행) 법인장 등 10년 넘게 일본에서 근무한 '일본통'이다. 글로벌 전문성은 있으나 정작 은행 내부 조직 장악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위 행장 역시 "진 내정자가 일본 근무 18년을 포함해 최근 20년간 국내 영업 경력이 없기 때문에 업무 인수인계에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다"고 했다. 조직을 재 정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진 내정자를 전격 발탁한 조 회장의 고민도 커졌다. 원칙상 지주 회장은 은행 부서장급 인사에 관여할 수 없다. 조 회장은 이번에 위 행장을 향해 사실상 칼을 빼들었다. 한동우 전 신한금융 회장이 위 행장 연임 관련 조 회장을 설득하려 애썼으나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 행장을 비롯해 이번에 교체된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사장, 이병찬 신한생명 사장, 설영오 신한캐피탈 사장, 이신기 신한아이타스 사장 등은 모두 '라운찬·한동우 라인'이라 불린다.

이세하 기자 shys0536@ 김보름 기자 fullmoon@

DGB금융, 지배구조 '역주행'

김태오 회장, 은행장 겸직 명분·경영 투명성 등 논란 "경영위기 수습 효과적 대안"



DGB금융 부사장을 행장 후보로 추천했다. 현재 KB·신한·하나·농협·우리금융지주 등 5대 금융지주사 가운데 지주사 회장이 행장을 겸하는 곳은 우리금융 한 곳뿐이다. 이는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예컨대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2014년 10월 취임하면서 국민은행장을 겸임했으나, 금융당국이 회장·행장 겸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2017년 허인 국민은행장에게 행장직을 넘겼다.

김태오(사진) DGB금융지주 회장이 대구은행장을 겸임하면서 '제왕적 지배구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금융지주의 회장과 행장직을 분리하는 금융당국의 정책적 판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안이다. 상황에 따라 김 회장의 경영 활동이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DGB금융지주 자회사최고경영자추천후보위원회(자추위)는 11일 김 회장을 대구은행장 후보로 추천했다. 임기는 내년 12월 31일까지다.

DGB금융 이사회 관계자는 "거듭 논의를 거친 공방 끝에 최종적으로 현재 경영 위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습해 고객 신뢰를 근본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구은행에서 추천한 후보자 2명 등 6~8명의 역량과 은행장으로서의 자질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채용비리, 비자금, 펀드 손실보전 관련 등으로 마땅한 후보자를 찾기 어려웠다"고 했다.

당초 DGB금융 이사회는 8일 대구은행장 후보를 결정하려 했으나 최종 결정을 이날로 미뤘다. 당시 자추위는 최근 3년 이내 은행에서 퇴임하거나 현직 지주·은행 임원 약 20여 명을 대상으로 검증을 진행했다. 하지만 마땅한 후보자를 찾지 못했다. 앞서 대구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박명흠 전 대구은행 부행장과 노성석 전

김 회장은 15일 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은행장으로 선임된다. 은행 임추위가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대구은행장은 지난해 3월 박인규 전 행장이 사퇴한 이후 10개월째 공석이다.

하지만 DGB금융은 이러한 명분이 약하다. 오히려 그동안 '제왕적 지배구조'로 비판을 받아와 행장과 회장 분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박인규 전 DGB금융 회장은 대구은행장을 겸직하면서 비자금 조성과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이 때문에 김 회장도 취임 이후 수차례 "지주와 은행장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며 행장 겸직을 안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회장은 15일 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은행장으로 선임된다. 은행 임추위가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대구은행장은 지난해 3월 박인규 전 행장이 사퇴한 이후 10개월째 공석이다.

이세하 기자 shys0536@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11일 충남 천안 계성원(교보생명 연수원)에서 열린 '2019년 출범 전사 경영전략회의'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제공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IPO 통해 수익·성장 확대"

교보생명 전사경영전략회의

"IPO 추진은 제2의 창사."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11일 충남 교보생명 연수원에서 열린 '2019년 출범 전사 경영전략회의'에서 "IPO 추진으로 이해관계자 경영을 선도하는 금융회사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은 이날 지난해 경영성과를 짚은 뒤, 올해 경영전략을 공유했다. 그는 올해 핵심 추진 과제로 '상품 혁신'과 '디지털 혁신'을 꼽았다. 신 회장은 "상품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혁신 가속화로 신계약 증대와 효율 개선에 힘써 고객 보장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

품과 디지털 혁신을 통해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제공해 영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올 하반기 IPO 추진을 통해 새 회계제도(IFRS 17), 키스(K-ICS) 등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수익성·성장성을 높여 성과중심의 경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혁신 등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를 늘려 도약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도 내세웠다.

김ברי 기자 kimstar1215@

우리금융, 첫 광고모델 걸그룹 '블랙핑크'

우리금융지주가 지주 출범 후 첫 광고 모델로 아이돌 걸그룹 '블랙핑크(BLACKPINK)'를 발탁했다. 5대 금융지주사 간 스타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리딩뱅크'를 향한 공격적 영업에 나설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은 블랙핑크를 광고 모델로 선정했다. 블랙핑크는 2017년부터 우리은행 광고 모델을

말아온 박형식의 다음 타자로 우리은행의 새 얼굴이 될 예정이다. 우리금융의 새 출발을 알리고 젊은층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의미다.

블랙핑크는 'K팝 대표 그룹'이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두터운 팬 층을 확보하고 있어 우리은행의 '글로벌·디지털 뱅킹' 이미지와도 잘 맞는다는 평이다. 우리은행이 글로벌 톱 걸그룹을 앞세운

광고를 제작한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우리은행은 과거 다른 시중은행과 달리 TV광고에 소극적이었다. 지주사 해체, 민영화 추진 등 우리은행만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다. 공적자금을 받은 상황에서 금융위기라는 약재까지 겹쳐 광고에 집행된 예산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 2015년 위비뱅크 출시 당시에도 비용절감 차원에서 캐릭터인 위비(꿀벌)를 적극 활용했다. 우리은행은 새 모델 블랙핑크를 앞세워 상품 개발 등 '리딩뱅크'를 향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차기 저축은행중앙회장 최우선 조건 업계 "당국에 쓴소리할 수 있는 사람"

후보 공모 역대 최대 7명 등록 "규제 해소할 실무 전문가 필요"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후보 공모에 역대 최대 인원인 7명이 등록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새 회장으로 업계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전달하고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는 실무형 전문가를 원하고 있다.

13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새 회장의 최우선 조건으로 저축은행 실무 전문가를 꼽았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중앙회 소속) 79개 회원사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모두 다르고,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성격이 다르다"며 "이를 이해하고 업계 입장을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당국과 소통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역대 회장 대부분이 정권의 영향력이 작용해 업계 이해도가 낮은 관료 출신이 임명됐기 때문이다. 단순히 '민간 출신'이나, 관료 출신이냐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실무에 능한 전문가가 회장직을 맡아야 업계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다는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관계자는 "(출신과 무관하게) 당국에 쓴소리할 수 있는 '쌈닭' 같은 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저축은행 업계는 다른 금융권에

비해 규제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묵은 과제인 동일인연신한도 규제 완화와 예금보증공사에 납부하는 예금보험료 인하 문제가 해결될지 바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두 문제 외에도) 인터넷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경쟁하려면 정보통신 분야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는 분이 (회장직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는 총 7명으로 △남영우 전 한국투자저축은행 대표 △박도규 전 SC제일은행 부행장 △조성권 전 예스저축은행 대표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원장 △황종섭 전 하나저축은행 대표 △박재식 전 한국증권금융 대표 △한이현(75)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다. 민·관(民·官) 출신이 두루 출사표를 던져 역대급 흥행이다. 2015년 제17대 회장 선거 당시 3명, 2012년 제16대 회장 단독 후보자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저축은행중앙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다음날부터 16일까지 후보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출한다. 과거 단수 후보 추천에서 벗어나 복수 후보 선출 가능성도 크다. 최종 후보자는 21일 회원사 과반 참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차기 회장에 선출된다.

정용욱 기자 dragon@

달라진 신입사원 연수... 오후 6시 '칼퇴근'

연수일도 '주 52시간'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기업들의 신입사원 연수 풍경도 변하고 있다. 길게는 수주일간 합숙 연수를 통해 창업주 경영철학 및 직무 소개, 인성교육, 비즈니스 예절 등을 진행하던 기업들이 신입사원의 근로시간 초과를 방지하기 위해 연수 방식을 변경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놓고 신입사원들에게 그룹마다 다들 수밖에 없는 사풍(社風) 등을 제대로 교육하기 힘들다는 기업 인사팀의 푸념이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야간 산행 등 무리한 합숙교육 관행을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신입사원 합숙 연수를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에 맞춰 교육 프로그램을 변경 중이다. 기존에는 신입사원 합숙 연수를 주야, 주말과 상관없이 교육 프로그램을 짜 진행했지만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으로 교육 역시 근무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 52시간 기준에 맞춰 프로그램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 A사 관계자는 "이전에는 야간에 온라인 교육이나 시험 등을 치기도 했고, 야간산행,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갖기도 했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에 따라 주요 기업 신입사원 연수풍경도 확연히 달라졌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넘기지 않고, 군대식 합숙도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기고 있다. 사진은 2011년 한 대기업 신입사원들의 '입사식' 모습.

현대차·SK·LG·GS그룹 등

야간 교육 없애 하루 8시간 연수

신입사원 주말 귀가 조치 늘고

한화·코오롱 평일 합숙도 자율

지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부분 기업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합숙 교육을 진행하고 합숙 역시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변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도 "합숙으로 교육을 진행한다는 점 자체가 부담스러워 없애려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회사의 경영철학과 기업문화, 직무 등을 교육하려면 기존

의 합숙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 합숙은 우선 유지하는 쪽으로 기도를 잡았다"며 "다만 향후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교육 방식은 재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K그룹의 경우 신입사원의 합숙 기간 동안 주중 교육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하고 이후 시간은 자율로 운용된다. 야간 교육은 최소화하고 만약 야간 교

육이 있을 시 향후 대체 휴가를 준다. 또 주말 교육은 없애고 주말에는 신입사원들을 귀가 조치하는 방식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변경했다. 현대차그룹도 큰 틀에서 신입사원 연수는 그대로 진행하지만, 교육 프로그램을 통상 일 8시간, 주 40시간 내외로 진행하고 있다.

LG그룹은 지난해 7월부터 신입사원 합숙 교육 방식을 변경했다. 경기도 이천시 LG인화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만큼 속소를 제공하지만 야간·주말 교육을 없애고 주말에는 신입사원들을 귀가시킨다. GS그룹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신입사원 교육을 실시한다.

한화그룹 또한 52시간 제도에 맞춰 교육 프로그램을 변경했다. 주중과 주말 합숙은 자율적으로 하고 교육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한정했다. 교육 시간 외에는 신입사원들이 자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다. 아울러 코오롱그룹도 평일 8시간 교육 외 숙박 여부는 신입사원 자율 판단에 맡겼다. 재계 관계자는 "이런 신입사원 연수 프로그램을 놓고 선진화된 것이라고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특유의 경영철학을 이해시키기기에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LG "테크니큐리안 잡겠다" 美 프리미엄 승부

〈혁신 제품 찾는 40~50대 고소득층〉

'고급 빌트인 쇼룸' 세계 두 번째로 나파밸리 개장 송대현 H&A 사장 "브랜드 밸류 낙수효과 기대"

"미국의 '테크니큐리안' 소비층을 타겟으로 프리미엄 전략을 펼치겠다."

11일(현지시간) LG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나파 밸리에 시그니처,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SIGNATURE KITCHEN SUITE) 쇼룸을 개장하고 송대현 H&A(홈플러스이앤스&에어 솔루션) 사업본부장(사장)이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사업 전략을 공개했다. 이곳은 서울 논현동에 이은 두 번째이자, 해외에 오픈한 첫 번째 LG전자 빌트인 쇼룸이다.

송 사장이 미국 빌트인 가전시장 사업 전략에 대해 기술 수용력이 높은 중년의 고소득층을 핵심 타겟으로 정했다며 제시한 새로운 용어가 테크니큐리안이다. 이는 '기술'(Technology)과 '미식가'(Epicure)의 혼성어로 '새로운 기술을 추구하는 미식가'라는 의미다. 기존 미국 내 경쟁사들은 소비력을 갖춘 '베이비부머'(1946~64년생)를 타



서울 강남구 논현동 'LG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쇼룸. 연합뉴스

겟 소비층으로 잡았다. 반면 LG전자는 이보다 젊지만, 소비력이 있는 40~50대의 고소득층을 주된 타겟 층으로 설정했다.

그는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사업 진출하기 위해 쇼룸을 설치해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고 했다. LG전자는 빌트인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 격인 건설자나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을 주기적으로 초청해 제품 교육을 하는 마케팅 장소로 나파밸리의 쇼룸을 활용할 계획이다.

프리미엄을 미국 시장의 전략방향으로 수립한 이유로는 '낙수효과'를 꼽았다.

송 사장은 "(보급형 제품으로만 경쟁하는) 레드오션에서는 돈은 못 벌고 고생만 한다"면서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브랜드 밸류를 수립하고, 그 낙수효과가 중간 수준 범위의 제품군까지 미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아이들이 성장하며 그 제품 브랜드에 익숙하면 그들이 성인이 됐을 때 해당 브랜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미국 시장에서 자리를 잘 잡으면 물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LG 시그니처를 구성하는 기본 라인업은 올레드 TV·냉장고·세탁기가 슉공기정정기 등 4종이지만 미국에서는 식기세척기와 오븐을 포함해 6종을 갖췄다. LG전자는 올해 말 완공 예정인 동부 뉴저지의 신사옥에도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를 전시하는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새 갤럭시폰 2월 20일 공개...파리 한글광고 삼성전자는 '갤럭시 언팩 2019' 한글 옥외 광고를 11일(현지시간)부터 프랑스 파리 콩코드 광장(Place de la Concorde)에서 진행한다. 삼성전자가 해외에서 한글 옥외광고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래를 펼칩니다'라는 문구는 갤럭시 출시 10년을 맞이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혁신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고 '이월이십일'은 새로운 갤럭시 스마트폰이 공개되는 날짜"라고 설명했다. '갤럭시 언팩 2019'는 다음 달 20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삼성전자 17년 연속 '재계 1위'

〈매출 기준〉

韓 영업의 비중 최고 30% 육박

삼성전자가 지난해까지 무려 17년 연속 매출액 기준 '재계 1위' 자리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7년간은 줄곧 국내 1000대 상장기업의 매출 가운데 10% 안팎을 차지했다. 영업이익 비중은 최고 3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경제의 '삼성전자 의존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기업정보 분석업체 한국CXO연구소 등에 따르면 이날 창립 50주년을 맞은 삼성전자는 2002년에 매출액 기준 1000대 상장사 가운데 처음으로 1위에 오른 뒤 지난해까지 단 한 번도 선두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1000대 상장사 가운데 차지하는 매출 비중도 확대됐다. 1996년에는 전체의 4.1%에 그쳤으나, 2002년 5.9%로 높아진 뒤 2013년에는 11.0%에 달했다. 2017년에는 10.9%였고,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한 지난해에는 이보다 더 높아졌을 가능성도 있다.

전자의 영업이익 비중은 1996년에 7.3%로 한국전력(8.2%)보다 낮았다. 그러나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22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 특히 2013년에는 무려 29.2%에 달하기도 했다. 당시 1000대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 총액 74조7000억 원 가운데 21조8000억 원을 삼성전자가 올렸다. 같은 해 당기순이익 비중은 42.4%까지 치솟았다.

오일선 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도 과거 경영 위기를 여러 차례 겪었지만, 그때마다 비용을 줄여 높은 이익을 내는 '분모(分母) 경영'보다 시장의 파이 자체를 키우는 '분자(分子) 경영'에 집중하며 성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분모·분자 경영은 1997년 발행된 이견희 삼성 회장의 에세이 '생각 좀하며 세상을 보자'에 등장하는 용어다. 이 회장은 이 책에서 "기업이 돈을 버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면서 "비용을 줄이는 분모 경영과 파이를 키우는 분자 경영"이라고 지적한 뒤 '분자 경영'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포스코 경영진, 젊은 직원 목소리 직접 듣는다

마케팅혁신위원회 출범

포스코는 11일 '기업시민 포스코마케터 변화 실천다짐 대회'를 개최하고, 기업시민 실현을 위해 마케팅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고 13일 밝혔다.

마케팅혁신위원회는 고객과 임직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변화를 주도할 젊은 직원(사원·차장)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혁신위원들은 중간보고를 거치지 않고 고객의 목소리와 개선안을 최고경영층과 직접 소통한다.

또한 마케팅 본부 내 '고객 With POSCO 센터' 대표전화와 이메일을 신설한다. 회사 관계자는 "담당자를 통해 고객

의 불만사항을 접수하던 기존 방식이 바뀐 것"이라며 "담당자 수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종합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통체계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정택 마케팅본부장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도 다시 생각하는 습관을 키우고, 지금 하는 행동이 고객 가치를 높이는 것인지 늘 의문을 던지며,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임원을 비롯한 직책보임자들이 솔선수범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포스코는 1월 말까지 고객사를 방문해 마케팅 혁신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고, 향후 마케팅혁신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기아차 업계 첫 LOL 후원 유럽리그 메인스폰서 참여

기아자동차가 국내 완성차 업체 최초로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s·LOL)' 후원에 나선다. 월 평균 1억5000만 명이 즐기는 게임을 대상으로 글로벌 인지도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아차는 '리그 오브 레전드' 제작사인 라이엇 게임즈(Riot Games)와 본격적인 협업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스폰서십 체결을 통해 '2019 롤(LOL) 유럽 리그'의 자동차 부문 독점 메인 스폰서 타이틀을 획득하게 됐다. '롤(LOL) 유럽 리그' 메인 스폰서는 △중계방송 로고 노출 △시즌별 경기 관람 입장권 △결승전이 열리는 경기장 내 홍보 부스 운영 등의 권리를 갖게 된다. 김준형 기자 junior@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은 영원할 수 없기에

그래서 누군가는 반드시 새로운 물을 찾아야 하기에

두산은 지구의 97%인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영원히 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술

자금은 물이 부족한 몇몇 나라를 위한 기술이지만

미래엔 지구와 사람을 지켜줄 생명의 기술입니다

두산은 지금 내일을 준비합니다



두산은 시장점유율 세계 1위의
해수담수화 플랜트 기술로
1,700만 명이 사용 가능한
500만 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해수담수화 플랜트 시장점유율 세계 1위
(2011~2015 Thermal 부분, GWI 발표기준)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19 개막일인 8일(현지시간) 삼성전자 전시관에서 관람객들이 삼성봇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홈 넘어 車까지 간 스마트홈, 필수로 자리잡은 AI

CES 2019 결산

11일 폐막한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19'의 화두는 역시 5G(5세대 이동통신)와 인공지능(AI)이었다. 다만, 지난해 CES나 IFA(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 수준을 크게 뛰어넘는 새로운 혁신은 없었다. 상향평준화 때문이다. 반면 기업들의 업종을 뛰어넘는 횡종연합 파트너십이 활발해지며 모빌리티와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눈에 띄었다.

◇경계를 넘는 AI = 스마트홈은 광의의 정의가 됐다. 홈을 넘어 자동차까지 아우렀다. 삼성전자는 집 안에서 자동차를 컨트롤할 수 있는 '디지털 콕핏'을 선보였다. '뉴 빅스비'가 적용된 AI 스피커 '갤럭시 홈'을 통해 차량의 주유 상태나 온도 등을 제어할 수 있고, 차 안에서는 스마트싱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집 안의 가전제품과 조명 등 IoT(사물인터넷) 기기를 쉽게 제어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홈을 살펴보면, LG전자는 제품 TV 중심, 소니는 제품 오디오 중심, 파나소닉은 솔루션으로 트랜스포메이션(변화), 삼성은 커넥티비티(연결성) 중심으로 가는 경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구글과 아마존, 인공지능(AI) 두 캠프 진영의 각축전도 굳어지고 있다. 구글과 아마존은 지난해 IFA에서 발목을 드러냈

다. AI는 몇 년 전부터 소개됐지만, 지난 IFA 때부터 이를 적용한 생태계가 늘었다. 소니·하이센스·필립스·TCL 등 수많은 글로벌 TV 제조업체들이 '구글 어시스턴트'를 장착한 안드로이드 TV 제품들을 전시했다. LG전자는 AI TV에 독자 인공지능 플랫폼을 비롯, 올해 처음으로 아마존의 음성인식 비서 '알렉사'도 장착했다.

◇로봇 시대로의 진입 = CES는 본격적인 로봇 시대 진입을 알렸다. 일본은 노령

삼성 스마트홈 연결성 집중 차량 콕핏서 집안 가전 제어

구글·아마존 AI 제품 붐물 가사용·산업용 로봇도 눈길

사회로 인해 가사도우미 로봇을 오래전부터 꾸준히 연구했다. 반려견 콘셉트 로봇도 있다. 미국은 군사용·재난로봇을, 한국은 중소기업 위주로 육성 정책을 펼쳤다. 이런 로봇산업에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변화가 일고 있다.

LG전자는 CES에서 산업현장, 상업공간, 물류시설 등에서 사용자의 허리근력을 보조하는 '클로이 수트봇'을 공개했다. 지난해 초 LG전자 로봇을 총칭하는 브랜드 'LG 클로이'를 론칭한 이후 최근까지 △

수트봇 △안내로봇 △정소로봇 △홈로봇 △잔디깎이로봇 △서브봇 △포터봇 △카트봇 등을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삼성봇(케어-에어-리테일)'과 '웨어블 보행 보조 로봇(GEMS)'을 CES에서 처음 공개했다. 네이버는 △로봇팔 '엠비텍스' △5G 이동통신 기술을 적용한 '브레인리스로봇' △실내용 증강현실(AR) 길찾기 기술을 적용한 로봇 '어라운드G'를 전시했다.

◇8K TV 놓고 안방싸움(?) = 8K TV는 이번 CES의 주요 이슈였다. 8K TV는 7680×4320 화소의 해상도를 구현할 수 있는 초고선명 텔레비전이다. 삼성전자는 QLED 8K 98형을 처음 선보였고, LG전자는 88인치 8K 올레드 TV와 8K 슈퍼 울트라HD TV를 공개했다. 소니와 중국 일부 업체도 8K제품을 선보였지만 아직 삼성이나 LG전자가 기술 주도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LG전자는 돌돌 말아지는 롤러블TV를 선보여 외신으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날로 좁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현장에서 나온다. TV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격차는 5~10년 전만 해도 2~3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봤는데, 이제는 사실 1~2년 이하로 줄어들었다"며 "중국 기업 하이센스가 독자적으로 TV에 들어가는 칩을 만든 것을 보면 격차가 크게 줄었음을 실감한다"고 설명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권태성 기자 tskwon@

“삼성 큐브, 아토피·비염 개선”

한양대 오재원 교수 연구팀 호흡기 알레르기 완화 입증

공기청정기 '삼성 큐브'가 아토피 피부염·알레르기 비염·천식 등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질환 호전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3일 삼성전자는 최근 국내 저명한 꽃가루 알레르기 분야 전문가인 오재원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주임교수 연구팀과 함께 '공기청정기가 알레르기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이 심각해지고 기후 변화로 꽃가루 농도가 증가하면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이 급증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공기청정기의 사용이 실제 이러한 질환의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고 소비자들의 건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한양대 연구팀은 8주 동안 아토피 피부염·알레르



공기청정기 삼성 큐브. 사진제공 삼성전자

기 비염·천식을 앓고 있는 15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 39명의 주요 활동 공간에 사용 면적 90㎡의 '삼성 큐브'를 배치한 후, 제품을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않을 때의 증상을 비교했다. 시험 결과 '삼성 큐브'를 사용해 실내 공기를 정화했을 경우, 세 가지 질환의 환자 모두 증상이 호전됐다.

윤인철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공기청정연구센터 상무는 "한양대 연구팀과 진행한 이번 임상시험 결과는 '삼성 큐브'만의 독보적인 초순도 정정 시스템의 차별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양대 기자 yeongdai@

랜섬웨어 정보센터 www.hauri.co.kr

당신의 소중한 파일을 노리는
랜섬웨어

알려지지 않은 최신 랜섬웨어

바이로봇 Anti-Ransomware

보안취약점을 통해 유입되는 랜섬웨어

바이로봇 APT Shield 2.0

이미 알려진 랜섬웨어 동작 시

바이로봇 7.0

⚡ 하우리, 바이로봇으로 차단하세요!

수년간 축적된 소중한 데이터를 한 순간에 암호화 시켜버리는 랜섬웨어. 대한민국 대표백신, 바이로봇 솔루션으로 랜섬웨어를 차단하고 소중한 데이터를 지키세요.

(주) 하우리 | 서울시 종로구 을지로 238 (여말린당) 6층 | 대표전화 02-3676-1100

“택시 규제 풀어 카풀 플랫폼과 함께 혁신해야”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

⑧ 이태희 택시 대표

택시는 뜨거운 ‘카풀 갈등’에서 한발 물러서 있는 기업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업계와 부딪히고, 풀러스, 차차 등 차량공유업체가 규제와 고군분투하는 동안 택시는 조용히 이용자를 늘리는데 집중했다.

공항 전용 차량 공유 서비스인 택시는 기사가 포함된 11~15인승 승합차 렌터카로 속소와 공항을 연결한다. 2017년 10월 국토교통부(국토부)로부터 합법 판정을 받았다. 그해 서울시 우수관광 스타트업으로 선정됐다. 작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만든 공식 교통 안내 애플리케이션(앱) ‘고 평창(Go Pyeongchang)’에 주문형 교통서비스 사업자로 참여했다.

택시는 순항하고 있지만, 이태희(49) 택시 대표의 고민은 깊다. 한국의 모빌리티 산업이 규제에 발목이 잡혀 돌아오지 못하는 수준으로 뒤쳐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택시 업계를 향한 일침을 서슴지 않았다. 그 일침은 택시 업계, 나아가 모빌리티 산업 전체를 향한 우려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 대표는 “택시 업계는 혁신할 시간을 먼저 달라고 한다”며 “하지만 반대로 카풀과 함께 경쟁을 먼저 해야 혁신이 일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택시 업계는 ‘카풀 금지’만을 요구하면서 정부가 제안하는 토론회에 나오지 않고 있다”며 “사회적 논의를 할 기회를 택시 업계가 일관되게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업계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국내 택시 시장 규모는 8조6000억 원에서 2015년 8조 원으로 줄었다. 우버, 카카오모빌리티가 등장하기 전이었는데도 택시를 타는 사람이 줄었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상황이 이런데 카풀 반대만 한다고 사람

기회에 규제를 풀고 카풀 플랫폼과 함께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시와의 상생에 택시도 동참할 예정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 씨는 정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스마트폰 산업에서 한국은 선진국이었지만, 전 세계 모빌리티 혁명에서는 한국은 뒤처졌다. 그는 “결국 20년 뒤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저하로 나타날 것이고, 그 책임을 정부가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버’ 여객운수사업법에 막혀 2년 만에 사업 철수 韓 모빌리티 산업, 정부 규제에 5~7년가량 뒤쳐져 택시업계도 반대보다 카풀과 경쟁해야 성장할 것

들이 택시를 탈까”라고 반문하며 “택시 업계가 혁신하지 않으면 영원히 8조 원 수준에 머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택시 업계에 불어닥친 더 큰 위협은 자율주행이다. 이미 현대차그룹은 2일 신년사에서 2021년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기업이 자율주행까지 본격화하면 택시 업계는 더 힘들어진다”고 전망했다.

택시 업계에 혁신만큼 중요한 것은 규제를 푸는 것이라고 이 씨는 설명했다. 그는 “택시는 요금, 운행시간, 차종 등 모든 부분에서 규제를 받아왔다”며 “이번

이 대표는 “우버가 세계를 휩쓸 때 일본과 한국만 제외됐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모빌리티 산업이 5~7년가량 늦어졌다”며 “늦게 시작한 나라는 퀵텀 점프(단기에 이루는 비약적 발전)를 해도 모자라는데 지금 우리는 제자리걸음”이라고 분석했다.

우버는 2013년 한국에 들어왔지만 여객운수사업법에 막혀 2년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 대표는 우버가 한국에서 실패한 원인을 “규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택시는 규제의 벽을 피해간 서비



이태희 택시 대표가 서울 강남구 택시 사무실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스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렌터카로 기사 알선을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택시는 이를 이용해 2016년 4월부터 인천·김포공항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는 김해, 제주 공항을 포함해 네 개 공항에서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도 택시 모델을 벤치마킹해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한 모델로 규제를 피해 갔다.

이 씨는 “한국에서 허용된 것들이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했다”며 “서울시와 국토부를 상대로 오랜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관계자가 여러 차례 회사를 방문해 이야기했고, 그 결과 관과 업체가 같이 노력해 성공적으로 규제를 풀 대표 사례가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5년까지 20년간 한겨레 신문 기자로 일했다. 국제부, 산업부, 정치부 등을 두루 거쳤다. 2010년 미국 조지아공대 연수에서 연수할 때 공유경제를 경험하며 창업에 눈을 떴다. 한국에 돌아온 뒤 집요한 준비 끝에 2015년 10월 법인을 설립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택시의 이용자는 50만 명을 넘겼다. 이 대표가 제시한 올해 이용자 수 목표는 210만 명이다. 그는 “국내 5대 공항을 기준으로 연간 이용자가 1억2000만 명이고, 인천공항만 7000만 명”이라며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3%가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올해 목표는 글로벌 진출이다. 상반기 중으로 해외 공항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외 현지업체와 제휴를 맺을 계획이다. 1분기에는 제주공항 서비스도 오픈한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한성숙 네이버 대표(왼쪽 두 번째)가 네이버 CES 부스를 찾은 하현희 LG유플러스 부회장(왼쪽 첫 번째)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제공 네이버

네이버 ‘CES 데뷔전’ 성공

로봇팔·자율주행 기술 등 공개... 5000명 이상 관람

인텔 등 글로벌 기업 큰 관심... LG와 공동연구 합의

네이버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된 소비자 가전 전시회 ‘CES 2019’에 처음으로 참가해 국내외 관람객으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네이버·네이버랩스부스에서는로봇틱스와 자율주행, 모빌리티 등 위치와 이동 기반의 ‘생활환경지능’ 기술을 대거 선보였다. 부스에는 4일 동안 총 5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몰렸다. 특히 로봇 제어에 성공한 로봇팔 ‘엠비텍스’와 실내 자율주행 가이드 로봇 ‘어라운드G’의 시연 시간에는 많은 관람객들이 몰려 한동안 안전을 위해 출입이 통제되기도 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이번에 부스에 전시한 ‘엠비텍스’와 ‘어라운드G’ 등 로봇의 움직임이 날이 갈수록 자연스러워지고 있다”며 “세계 처음으로 시도하는 기술임에도 안정적으로 동작해 높은 기술적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CES 2019에 참가한 글로벌 기

업과도 다양한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실제 네이버는 인텔과 엔비디아, 퀄컴, P&G, LG전자, LG유플러스, SM엔터 등 부스에 방문한 다양한 기업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LG전자와는 CES 기간 중 로봇 기술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 또 퀄컴과 지도업체 ‘히어’, 위치기반 서비스 기업 ‘포스퀘어’ 등 글로벌 기술 기업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네이버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해외무대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다양한 파트너십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석상욱 네이버랩스 대표는 “현장에서 우수 글로벌 기업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온라인에서 자료로 협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논의가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협력을 위해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행사가 있다면 어디든 출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중소 R&D 투자 늘었지만... 대기업과 격차 커져

국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규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1개사당 평균 연구개발비는 대기업의 1.3%에 그쳤고, 연구원 1인당 평균 연구개발비도 대기업의 27.6% 수준이었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이 13일 공개한 ‘중소기업 R&D투자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R&D 투자는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대기업과의 격차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중소기업 R&D투자는 2017년 기준 13조6910억 원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8.0%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기업 연구개발비 가운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6.6%에서 21.9%로 줄었다. 중소기업 1개사당 평균 연구개발비 역시 같은 기간 6억3000만 원에서 3억4000만 원으로 46%나 감소했고, 대기업 대비 비중도 2.4%에서 1.3%로 1.1%p 줄었다. 같은 기간 연구원 1인

2017년 기준 13조6910억
최근 10년간 연평균 8% 증가
1개사당 연구개발비 46% ↓
대기업 대비 비중도 1.1%p 감소

“정부지원 꾸준히 확대해 나가야”

당 평균 연구개발비도 대기업 대비 44.7%에서 27.6%로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커졌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중소기업들은 2019년도 R&D 투자와 R&D 인력에 대한 신규 채용을 전년 대비 확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56.8%가 올해 “R&D 투자를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응답했으며, 축소 전망(24.0%)이 확대 전망(19.2%)보다 많았다. R&D 인력 신규 채용은 중소기업의 56.4%가 전년 수준

으로 유지하겠다고 답했으며, ‘축소 전망(28.0%)’이 ‘확대 전망(15.6%)’보다 많았다.

노 연구위원은 이처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R&D 투자 격차가 큰 것은 정부 지원 부족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실제 우리나라 기업 부문 R&D 투자 대비 정부 지원 비중은 2012년 12.27%에서 2016년 8.35%까지 떨어졌다. 그는 △연구역량 우수기업 지원 △이공계 병역대체복무제도 유지 강화 △중소기업 공동·위탁 R&D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노 연구위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R&D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를 기본 방향으로 하되, 신규 사업 발굴과 계속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

산단공, 올 환경개선펀드 2500억 투자

노후산업단지 우수 청년인력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2500억 원이 올해 투자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1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다.

13일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근로·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2019년도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3월 1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는 정부 펀드출

자금을 기반으로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해 노후산업단지의 환경개선, 업종고도화에 필요한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올해 펀드 투자대상 단지는 서울디지털, 남동, 반월시화 등 18개 국가산업단지와 대구성서, 부산신평장리 등 30개 일반산업단지다.

이번 사업자 공모에서는 청년친화형 선도산업단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고용위기지역 산업단지 등은 평가

지난해보다 1000억 늘어 ‘최대’ 민간사업자 3월 11일까지 공모

시 우대한다. 투자 분야는 산업집적고도화(첨단공장, 지식산업센터, 물류시설 등), 주거편의문화(기숙사형오피스텔, 문화컨벤션 등), 산업기반시설(우수공급, 교통·통신, 에너지지원시설 등) 등이 대상이다.

제조업 활력 회복을 위해 공공·민간사업자와 협업을 통한 구조조정 부지 개발, 부동산 개발사업 위주에서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산단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훈 기자 yes@

‘모빌리티 플랫폼’ 사활 건 편의점 “물류 O2O 키운다”

이마트24, 전남 목포에 고객 유도용 편의점 주유소 2곳 오픈
GS리테일도 점포에 전기차 충전시설 500곳 이상 확대키로
‘이마트24-O2O’ ‘BGF-요기요’ 등 온라인 물류거점 움직임

‘동네 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을 대표하던 편의점이 온라인·모바일 사업 강화를 위해 주유소, 전기차 충전소 등 모빌리티 편의시설 확보에 나서고 있다.

업계는 주유 및 충전 고객을 유도해 집객 효과를 보기 위해서라는 입장이지만 결국은 이들 시설을 O2O서비스의 물류 거점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최근 직접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해 최근 ‘석유 판매업 및 연료소매업’을 사업 목적에 신규 추가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전남 목포 백년대로에 편의점 주유소 1·2호점인 노벨상주유소와 평화상주유소를 오픈했다. 두 주유소는 기존 현대오일뱅크가 운영하던 곳으로, 이마트24가 임차해 직영으로 운영한다.

이마트24는 직접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고객을 유도해 매출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목포 지역 주유소 2곳을 임차해 가오픈했다”면서 “이달 그랜

드 오픈 예정으로 반응이 좋으면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편의시설 강화에 나선 곳은 이마트24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GS리테일은 GS25와 GS수퍼마켓을 통해 전기차 충전 시설을 갖춘 점포를 2025년까지 500곳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GS25 20개, GS수퍼마켓 22개 등 현재 총 42개의 전기차 충전 시설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은 올해 100개 점포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CU(씨유)를 운영하고 있는 BGF리테일 역시 전기차 충전소에 공을 들이고 있다. 2017년 12월 업계 최초로 테슬라 전용 충전소를 오픈한 CU는 현재 경기와 제주 등 10여 개의 매장에서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있다. 올해 전국 300여 개 점포로 확대할 예정이다.

자동차 이용 고객이 주유소와 충전소를 들르면서 편의점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대용량 제품 구매나 대량 구매 고객이 늘어



편의점 전기차 충전소·주유소 진출 현황

업체	내용	계획	
		현재	계획
CU	경기·제주 등 전기차 충전소 10개 운영	현재 10개	올해 300여 개 목표
GS리테일	전기차 충전소, GS25 20개·GS수퍼마켓 22개 운영	현재 42개	올해 100여 개 목표
이마트24	전남 목포 주유소 2곳 운영	현재 2곳	확대 방침

※ 출처: 각 사

매출이 상승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 내 편의점은 한때 고객 유치를 위해 유행했지만, 매출 감소로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편의점들이 자동차 편의시설을 확대한다는 것은 다소 의외란 평가다.

결국은 편의점 업계가 온라인 및 모바일

사업 강화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

간 편의점은 다른 유통업체에 비해 온라인 사업이 다소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발목을 잡은 것은 물류망 확보다. 편의점 업계가 빠른 배송을 위한 최종 물류 거점으로 주유소 및 전기차 충전소 일부를 활용할 것이라 설명이다. 죽어가던 편의점+

주유소 결합 매장이 O2O서비스를 위한 물류 거점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최근 들어 편의점 업계는 온라인 사업에 조금씩 발을 내딛는 모양새다. 지난달 이마트24는 처음으로 O2O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앱에서 상품을 결제 후 매장에서 수령하는 방식이다. 이마트24가 다수의 물류 거점과 배송망을 확보할 경우 손쉽게 배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

BGF리테일은 요기요와 손잡고 전국 배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앱 주문 플랫폼이 더해질 경우 손쉽게 온라인 쇼핑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 GS리테일이 지난달 주주총회 사업 회사인 GS파크 24 지분을 인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GS리테일은 당시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과 시너지를 꾀해 유통 허브 플랫폼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선 식품 등의 배송을 위한 최종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죽어가던 편의점과 주유소 결합 매장을 다시 꺼내 든 것은 단순 고객 확보 차원이 아닐 것”이라며 “편의점이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물류에 약점이 있었던 만큼 배송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롯데그룹 회장〉

‘유통 강화’ 힘신는 신동빈 첫 현장은 인천 롯데타운

경영복귀 후 첫 주말방문...롯데백 인천터미널점 직원 격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을 방문해 현장경영을 펼쳤다. 신 회장이 주말에 사업장을 방문한 것은 지난 10월 경영에 복귀한 이래 처음이다. 이 점포는 지난 1일 신세계로부터 이관받은 곳으로 ‘롯데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신 회장이 ‘유통 강화’에 힘을 싣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3일 롯데지주에 따르면 신 회장은 전날 오후 3시 30분께 최근 신규 오픈한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에 도착해 1시간 반 가량 백화점과 마트를 둘러봤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강희태 롯데백화점 대표와 문영표 롯데마트 대표 등이 동행했다. 신 회장은 6층 식당가를 시작으로 각 층을 돌며 영업 상황을 세세히 살피었다.

신 회장이 새해 첫 현장방문장소로 택한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은 올 초 롯데가 신세계로부터 운영권을 이관받은 곳이다. 신세계가 운영해온 인천터미널점은 지난 1일 인천시로부터 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한 롯데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롯데는 인천터미널 근처 농산물도매시장 부지 등 복합쇼핑몰 개발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롯데백화점·마트·복합쇼핑몰 등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롯데타운’ 조성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이번 행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 원 규모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장에서 재판을 받던 신 회장이 지난해 10월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뒤 첫 주말방문이기도 하다. 신 회장은 지난해 경영 복귀 후 유통과 관광, 서비스 사업에 12조5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2일 오후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을 깜짝 방문한 신동빈(왼쪽) 롯데그룹 회장이 임직원들과 함께 매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 롯데

한편 인천 지역 쇼핑 메카인 인천터미널점은 롯데백화점으로 간판을 바꾸고 지난 1월 4일 새롭게 오픈했다. 지하 2층부터 6층까지 부지면적 2만 9223㎡(8840평), 연면적 13만6955㎡(4만1429평), 영업면적 5만1867㎡(1만5690평)의 규모로 주차대수는 1600대다.

롯데백화점은 기존 신세계백화점 시절 브랜드 대부분을 승계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보수 작업이 필요한 푸드코트와 식품매장의 경우, 약 4개월의 리뉴얼 작업을 통해 오는 5월 오픈한다. 롯데백화점은 향후 단계적 매장 개편을 통해 차별화된 매장을 구성해 인천 및 경기 서부 상권 최고의 백화점으로 꾸밀 계획이다. 남주현 기자 jooh@



‘스케처스×원피스’ 컬래버 ‘신학기 운동화’로 딱이죠

신세계백화점이 신학기를 앞두고 ‘1020’ 고객들을 위한 덕후 마케팅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신세계는 본점, 강남점, 영등포점 등 11개 점포에서 엑스 운동화로 유명한 ‘스케처스 달라이트’ 한정판 운동화를 선보인다. 일본의 인기 만화 ‘원피스’의 주인공 루피, 에이스 등을 상징하는 빨강, 노랑, 보라색 등의 알록달록한 컬러를 입힌 이번 운동화는 구매 고객에 한해 원피스 피규어 증정행사도 펼친다. 3000족 한정으로 가격은 9만 9000원이다. 사진제공 신세계백화점

운동·피부관리·파티까지 ‘집’에서 급성장하는 ‘홈코노미’ 시장

#직장생활 5년 차에 접어든 강 모 씨는 ‘홈족’이다. 퇴근 후 운동을 즐기는 강 씨는 회사를 나와 헬스장이 아닌 집으로 향한다. 그는 집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틀어놓고 바닥에 요가 매트를 깔 뒤 스쿼트 등의 운동을 한다. 최근에는 마사지 볼과 폼롤러를 구입하고 기구 운동까지 병행하고 있다. 강 씨는 “집에서 편하고 여유롭게 즐기는 운동이 하루의 낙”이라고 말했다.

‘집’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주52시간 근무로 집은 단순히 주거 공간을 넘어 휴식, 문화, 여가, 운동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홈트레이닝 △홈뷰티 △홈카페 △홈인테리어 △홈파티 등은 홈코노미의 성장을 용어다.

13일 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홈트레이닝 관련 상품인 요가 비디오 DVD, EMS(Electronic Muscle Stimulation) 운동기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19%, 230% 증가했다. 홈카페 관련 상품인 티포트도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보다 840% 늘었다. 옥션에서 조립 가구는 지난해

옥션, 홈트레이닝 기구 매출↑ 인터파크, 홈뷰티 판매도 2배 집에서 ‘휴식+문화’ 수요 늘어



옥션 ‘LED 마스크’.

하반기 매출이 전년보다 246% 증가했다. 인터파크의 LED 마스크 등 홈뷰티 관련 상품의 지난해 12월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105% 늘었다.

홈코노미 상품의 성장세가 눈에 띄게 커지며 유통업계는 관련 시장에 뛰어들며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유통업계가 홈인테리어 시장에 진출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현대리바트를 통해 가구 사업을 펼치고 있는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해 10월 전자재를 유통하는 한화L&C를 인수하며 관련 분야를 강화했다. 신세계그룹도 지난해 1월 가구업체 까사미아를 인수했다.

화장품 업계는 ‘홈뷰티 디바이스’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진동클렌저를 시작으로 가정용 미용기기를 꾸준히 늘려나가는 아모레퍼시픽에 이어 에이블씨엔씨가 운영하는 미샤도 지난해 11월 ‘갈바닉 이온 & LED 마사지기’를 출시하며 시장에 진출했다.

롯데홈쇼핑의 1인 가구 대상 라이프스타일 전문관 ‘레티트(LETIT)’의 이용고객 소비 경향 분석 결과에서도 집을 ‘힐링 공간’으로 꾸미려는 소비자 성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홈시어터 등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영화관’, 셀프 미용기기를 추천한 ‘남몰래 예뻐지기 프로젝트’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현대홈쇼핑은 집에서 운동을 즐기는 홈트족을 겨냥해 지난 12일 2030세대를 위한 고정 프로그램 ‘영스타그램’에서 ‘손리 스쿼트 머신’을 방송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집에서 휴식, 문화, 레저 등을 다 해결하려는 ‘홈족’이 늘고 있다”며 “미코노미(Me+Economy)에 이어 개인의 공간을 중시하는 트렌드가 부상하면서 홈코노미 관련 제품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베트남·카자흐스탄 거점 삼아 ‘신품종’ 개발 확대”

CEO 인터뷰

류경오 아시아종묘 대표

종자 전문기업 아시아종묘가 올해 베트남과 카자흐스탄을 신품종 연구·개발 거점으로 삼아 투자를 확대한다.

류경오 아시아종묘 대표이사(사진)는 서울 본사에서 가진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1월 중 베트남 현지법인의 호찌민 연구 농장을 장기 임대로 매입할 예정”이라며 “7년 전 하노이 생산연구 농장을 개설한 후 필요성을 느껴 부지를 물색해 왔기에 이제는 곧 매입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시아종묘는 7년 전 베트남 생산연구 농장을 개설하고 긴급 소량생산 종자 연구

중자 산업, 제약·바이오처럼 신품종 개발에 장기 투자 필요
7년 전 하노이 생산연구 농장 개설 후 필요성 느껴 부지 물색
이천 생명공학 실험실 확장·자동화 시설하우스 건축도 병행

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채소 종자 신품종 연구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더 빠른 세대 진전이 필요한 종자사업 특성 때문이다. 1모작만 가능한 한국과 달리 연중 3~4모작이 가능한 베트남은 최적의 장소였다.

류경오 대표는 “종자 산업은 제약·바이오산업처럼 신품종을 만들어 내기 위한 장기 투자가 필요하다”며 “특허권과 효력이 동등한 국제 품종 보호권을 따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구조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반기에는 카자흐스탄을 양파 종자

수출시장의 거점으로 삼고 연구 농장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인도와 베트남에 이은 세 번째 해외법인이다. 연구를 마치는 대로 터키에서 수출용 양파 생산에 나선다.

류 대표는 “세계 양파 시장은 우리나라 양파와 달리 낮의 길이가 긴 곳에서 잘 자라는 장일양파(Long day Onion) 시장이 85~90%”라며 “이왕 양파 연구에 투자를 해온 만큼 미국, 유럽,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지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설비투자 확대



도 병행한다. 이천 생명공학육종연구소에 생명공학 실험실을 확장하고 자동화된 시설하우스를 건축한다. 품질관리센터에 소재하는 종자 생리연구소에 종자 검정 시설기와 종자 가공 시설을 대폭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투자금은 이미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류 대표는 “아직은 추가적인 자금 조달 계획이 없다. 그동안 확보된 내외부 자금으로 투자를 진행할 예정으로 제2·3의 사업장이 필요하게 될 시점에 고민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2004년 설립된 아시아종묘는 종자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다. 20년 이상 해외 수출을 해 온 만큼 국내보다 해외 수출시장에 영업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가별 맞춤 신품종 종자들을 육성해 판매한다. 전통적인 꽃가루받이 교배인 재래종 방법을 통해 잡종 강세인 1대 교배종 채소 종자를 생산한다.

대표 제품은 ‘TS엘리트 고추’, ‘초당 옥수수’, ‘다수확 참옥수수 ‘오색옥수수’, ‘미니강 1호 단호박’, ‘미인꽃고추’, ‘미인꽃고추 차’ 등이다.

차명명 기자 blooming@

에스디생명공학, 에스디생활과학·셀레뷰 흡수합병

매출 다변화 위해 만든 자회사
당기순손실 등 실적 도움 안돼
지배구조 단순화 효율성 제고

화장품 전문기업 에스디생명공학이 부진에 빠진 자회사 에스디생활과학과 셀레뷰를 흡수합병한다. 지배구조 단순화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여 그동안 부진을 만회하고 반등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에스디생명공학은 최근 자회사인 에스디생활과학과 셀레뷰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양사간 합병 비율은 1대 0으로 에스디생명공학은 존속하고, 에스디생활과학과 셀레뷰는 합병 후 해산된다. 두 회사 모두 3월 19일을 합병 기일로 삼고 있다.

이번 합병은 부진했던 신사업의 반등 기반을 마련하는 의지로 풀이된다. 에스디생명공학은 매출 다변화를 목적으로 2016년과 2017년 각각 자회사 에스디생활과학과 셀레뷰를 세웠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에스디생활과학은 자본금 10억 원으로

	2017년	2018년 1~9월
매출액	28억1800만	16억5300만
영업이익	-59억1200만	-16억6200만
당기순손익	-58억6400만	-17억4900만

	2017년	2018년 1~9월
매출액	8600만	23억3200만
영업이익	-3억9800만	5900만
당기순손익	-3억9800만	1억1200만

2016년 10월 헤어케어 사업 진출을 위해 세워진 회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7년 당기순손실 3억9800만 원을 기록, 부진한 실적을 이어나갔다. 2018년에는 3분기까지 1억12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는 데 그쳤다.

셀레뷰 사정은 더 좋지 않다. 셀레뷰는 에스디생명공학이 자본금 60억 원으로 색조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해 설립한 회사다. 그러나 지난해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인해 한한령이 발목을 잡으면서 설립 이후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셀레뷰는 2017년 당기순손실

58억6400만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도 에스디생명공학이 대여금 35억 원을 출자전환했지만 3분기까지 17억4900만 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했다.

두 회사 모두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디생활과학과 셀레뷰는 각각 10억 원, 60억 원의 최초 투입한 자본가치가 그대로 유지됐다. 취득원가로 가치를 평가하는 ‘원가법’을 적용해서다. 원가법을 적용받더라도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등 자산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지만 ‘현저한 가치 변동’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지난해 3분기 기준 자본가치는 에스디생활과학 10억 원, 셀레뷰는 대여금 출자전환 35억 원이 합쳐져 95억 원이 유지됐다.

에스디생명공학은 이번 합병에 대해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경영 효율성 증대와 영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통합 전략 수립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회사의 재무와 영업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코스닥 상장사, 지난해 불성실 공시 40% 급증

지난해 코스닥 시장의 불성실 공시 건수가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코스닥 시장의 공시불이행·공시반복·공시변경 등 불성실공시는 총 101건으로, 전년 대비 42.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4년 48건이었던 코스닥 시장의 불성실 공시 건수는 2015년 53건, 2016년 72건까지 늘었지만 2017년 들어 예방교육 강화 등의 효과로 71건으로 소폭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상장사의 증가와 함께 경

기 둔화, 주가 하락 등이 더해져 불성실 공시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불성실 공시 지정 사유별로는 타법인주식 취득·처분 관련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최대주주·경영권 변동 관련 15건, 유상증자 관련 15건, 소송 관련 9건,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8건, 최대주주의 주식담보제공 관련 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코스피의 불성실 공시 건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1건을 유지했다.

한편 코스피 시장의 전체 공시 건수는 1

만5059건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으며, 1사당 평균 공시 건수는 2.1% 늘었다.

공시 유형별로는 수시공시가 5.4% 증가했고 잠정실적·실적전망 공시 등의 공정공시 역시 3.8% 늘었다. 특히 수시공시 중에는 인수·합병 추진 경과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 경영사항을 담은 포괄공시가 2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는 676건으로 35.7% 증가했다. 한편 코스닥 상장사들의 경우 공시 건수가 6.9% 늘어난 2만918건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수시공시는 10.0% 증가한 반면, 조회공시는 32.3% 줄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엠코르셋, 미란다 커가 만든 화장품 3분기 중 출시

엠코르셋이 올해 3분기 흡수공법을 통해 미란다 커 유기농 화장품 출시한다.

엠코르셋은 지난 5년간 세계적인 슈퍼모델 미란다 커와의 윈더브라 모델 계약을 바탕으로 쌓은 신뢰를 쌓아오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미란다 커가 설립한 유기농 뷰티 브랜드 코라 오가닉스(KORA Organics)

국내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11일 엠코르셋 관계자는 “코라 오가닉스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백화점 매장 한두 곳에 입점을 계획하고 있다”며 “코라 오가닉스의 주력 제품이 가을에 인기 있는 기초 화장품으로 구성돼, 흡수공 출시는 3분기쯤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엠코르셋에 따르면 미란다 커는 다양한 유기농 제품들을 사용하다 한계를 느껴 자신에게 잘 맞는 건강한 유기농 화장품을 직접 만들고자 2009년 코라 오가닉스를 설립했다.

엠코르셋은 뷰티 헬스케어, 면세점을 통한 여타 오프라인 판매도 검토 중이며, 미란다 커의 이미지를 활용한 스타 마케팅에 집중할 계획이다.

고종민 기자 jim@



증시 불안에 부동산·특별자산 펀드로 자금 몰려 국내펀드 설정액 579兆 ‘역대 최대’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 펀드 등에 투자금이 몰리면서 국내 펀드시장 규모가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사모 주식펀드(PEF)를 제외한 국내 펀드 설정액은 10월 기준 총 579조1004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 10일 대비 63조5847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이로써 펀드 설정액은 8일 575조3620억 원으로 5개월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뒤 사흘 연속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최근 들어 실물자산 펀드인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 펀드 등이 펀드시장 자금 유입을 주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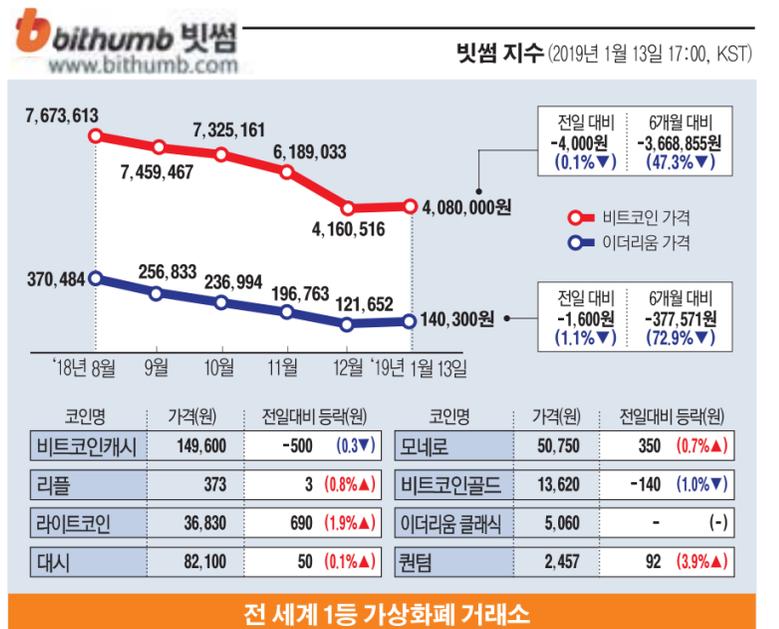
펀드 유형별 설정액은 주식 펀드가 86조5999억 원, 채권 펀드 102조994억 원, 부동산 펀드 75조5467억 원, 특별자산 펀드 71조3017억 원, 혼합자산 펀드 23조6850억

원 순이다. 1년간의 설정액 증가액은 전통 강자였던 주식 펀드와 채권 펀드가 각각 7조7268억 원, 6조9513억 원 증가한 데 그친 반면, 부동산펀드(15조6600억 원), 특별자산펀드(12조7557억 원), 혼합자산펀드(11조4246억 원) 등이 10조 원 넘게 증가했다.

금투협은 증시 불안 등의 요인으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고 안정적인 부동산, 사회간접자본 및 선박 같은 특별자산에 유입되는 대체 투자가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 펀드 설정액은 2014년 말 29조6098억 원에서 지난해 말 75조5485억 원으로 4년 새 155%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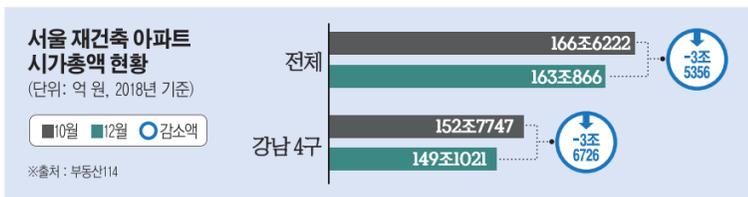
한편 국내 전체 펀드 설정액은 2014년 말 377조2788억 원에서 지난해 말 551조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고대영 기자 kodae0@



'9·13 대책' 후 서울 재건축 아파트 시총 3.5兆 급감

작년 10월 호가 반영 고점 대비
강남 4구 3.6兆·서초 2兆 줄어
재건축 급매물 출현... 하락 추세



서울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이 3조 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13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강남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내려간 탓이다.

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집계 기준 서울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은 총 163조866억 원으로 최고점인 지난해 10월(166조6222억 원)보다 3조5356억 원이 줄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은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9월 165조4614억 원에서 10월에는 166조6222억 원까지 올랐다. 대책 이전에 올랐던 호가가 통계를 10월에도 반영되며 시가총액이 증

가한 셈이다.

이후 대책 효과가 나타나며 재건축 단지에 급매물이 출현해 지난해 11월 조사에서 164조7110억 원으로 시총이 하락한 뒤 12월 들어선 다시 전월 대비 1조6000억 원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2017년 말 시가총액(142조3732억 원)과 비교해 최근 1년간 20조 원 이상 불어난 상태라 당분간 시총 하락 추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울 재건축 시총의 약 91%를 차지하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하락세를 주도했다.

지난해 말 기준 강남 4구의 시가총액은

149조1021억 원으로 10월 고점(152조7747억 원)보다 3조6726억 원 감소했다. 서울 전체보다 감소액이 큰 셈이다.

구별로는 서초구의 재건축 시총이 지난해 10월 37조9532억 원에서 12월에는 35조9824억 원으로 2조 원 가까이 줄었다. 재건축 이후에 따른 일부 단지 멸실도 시총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의 시가총액은 74조6374억 원으로 지난해 10월 대비 1조29억 원이 줄었고 송파구와 강동구도 각각 10월 대비 3775억 원, 3214억 원이 감소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재건축 모음이 송파구청에 이달말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노후 아파트들이 본격적으로 재건축에 들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1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단지. 뉴시스

비규제지역 '부천·인천' 분양시장 이끌까

자금력 약한 무주택자 수요 몰려
정부 규제 강화에 반사이익 기대

정부가 새해에도 부동산 가격 급등과 투기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예고하면서 비규제지역에 대한 풍선효과가 기대된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투기와 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 제한, 대출 제한, 중부세·양도세 인상,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청약요건 강화 등 전 분야에 걸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반면 규제지역 외에서는 이 같은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비

규제지역에서는 당점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뒤부터 분양권 거래가 자유롭고 중도금 대출 60%까지 가능하다.

자금력이 약한 무주택자나 1주택 가타기 수요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청약이 막힌 규제지역 대신 비교적 청약이 자유로운 비규제지역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이에 한 분양업체 관계자는 "내 집 마련 수요는 줄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지역에 대한 압박이 강해질수록 비규제지역이 반사이익을 얻을 전망이다"이라며 "다만 비규제지역 중에서도 입지가 좋고 미래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서울과 인접한 부천에서 지난해

11월 공급된 '래미안 부천 어반비스타'는 313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9945명이 청약에 나서 평균 31.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인천 미추홀뉴타운 첫 사업지로 주목을 받은 '인천 미추홀 꿈에그린' 복합단지도 평균 6.64대 1의 청약률을 보이며 순위 내 마감에 성공했다. 이곳은 금융결제원이 청약경쟁률 집계를 시작한 2009년 이후 인천 미추홀구에서 가장 많은 청약자 수인 4461명이 몰렸다.

올해도 기존 인기지역으로 통하는 규제권과 가까우면서도 상대적으로 값이싼 인천·경기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신규 단지가 연이어 공급될 예정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전국 주택 전월세전환율 8년 만에 최저

입주 물량 늘어 전월세가 하락

최근 전셋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전국의 주택 전월세전환율이 2011년 통계 작성 이래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2일 한국감정원이 2018년 11월 신고 기준 실거래 정보를 활용해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6.1%로 전월에 비해 소폭 하락한 가운데 유형별로는 아파트 4.7%, 연립다세대주택 5.7%, 단독주택 7.5%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수도권 5.7%, 지방 7.2%로 나타났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증가하면 전세금액 대비 월세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며, 이 비율이 떨어지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즉 전환율이 떨어지면 세입자로서 그만큼 전세 대비 월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지만 반대로 집주인들은 월세 수입이 감소해 임대사업 환경이 열악해진다는 의미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월세가 가격이 동반 하락세인 가운데 지역별·유형별 거래 특성에 따라 등락의 차이는 있으나 전국(주택종합, 6.1%) 기준으로는 2011년 1월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입주 물량과 갭투자자들이 내놓은 전세 물건 증가로 전셋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월세도 동반 하락한 영향이 크다.

광역시도별로 서울의 전월세전환율이 5.3%로 가장 낮았고, 부산(6.5%)·대구(7.2%)·인천(6.5%)·광주(6.9%)·세종(5.6%)·경기(6.3%) 등은 전월 대비 각각 0.1%포인트 하락했다. 또한 대전시와 전남은 6.9%, 7.5%로 전월 대비 0.2%포인트씩 떨어졌다. 이에 비해 경북이 전월세전환율이 8.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유형별로는 전국 아파트의 전월세전환율이 4.7%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연립·다세대(5.7%)와 단독주택(7.5%)은 작년 10월 대비 각각 0.1%포인트 하락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 청약경쟁 7.9대 1

지역내 전매제한 6개월 적용 마지막 단지... 84㎡ 인기 최고

대우건설이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일대에서 선보인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 아파트 전 주택형이 1순위 당해 지역에서 청약 마감했다.

13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10일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의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231가구 모집에 1845명이 청약 접수를 하면서 평균 7.9대 1, 최고 11.89대 1의 경쟁률로 전 가구 1순위에 마감됐다.

주택형별로는 전체 5개 타입 중 전용 84㎡ 타입이 84가구 모집에 당해 지역에만 404명이 몰리며 최고 경쟁률인 4.81대 1을 기록했다. 그 밖에 △전용 84㎡ 타입이 31가구 모집에 당해 지역에서 84명이 몰리며 2.71대 1을 기록했고 △전용 74㎡ 타입

입 1.79대 1 (43가구, 당해 77건 접수) △전용 74㎡ 타입 1.58대 1 (38가구, 당해 60건 접수) △전용 84㎡ 타입 1.2대 1 (35가구, 당해 42건 접수)을 기록했다.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 분양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용인시 수지구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6개월을 적용 받는 사실상 마지막 단지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며 "지역내 처음으로 들어서는 49층 최고층 단지로 전가구 중소형 구성에 차별화된 상품을 구성한 것이 수요자 니즈를 충족시킨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973-1번지 일원에 짓는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는 지하 5층, 지상 최고 49층, 4개 동, 총 447가구로 조성된다. 계약자의 자금 부



담을 줄이기 위해 중도금 60% 무이자 대출이 적용되며, 전매제한은 6개월이다. 당점자 발표는 17일이며, 정당 계약은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서울 오피스 공실률 소폭 감소

서울 대형 오피스 10곳 중 1곳은 비어 있는 상태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신규 공급이 없어 공실률은 감소하는 추세다.

13일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코리아가 발표한 '2018년 4분기 오피스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 대형 오피스 평균 공실률은 10.3%로 직전 분기보다 1.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분기 신규 공급발당이 없던 상황에서 3분기 도심권역(CBD)과 강남권역(GBD)에 신규 공급으로 증가한 공실면적 일부가 해소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도심권역은 직전 분기보다 2%p 내려간 13.1% 공실률을 기록했다. 3분기 신규 공급된 '센트로폴리스'가 금호아시아나·SKT 등

과 입차 계약하면서 공실률 하락을 주도했으나, 공실률은 여전히 다소 높은 편이다.

주요 입차인 이동으로는 '금호아시아나 사옥'이 매각되면서 금호타이어가 '홍콩생명빌딩'에 입차 계약했으며, 법무법인 세종이 '스테이트타워'에서 이탈해 '디타워'로 입주하면서 디타워 공실이 해소됐다.

반면 '종로타워'에서 공유오피스 브랜드 TEC가, '그랑서울'에서는 뉴스킨코리아, GS건설 등이 퇴거하면서 대형공실 면적이 발생했다. 강남권역은 5.7% 공실률을 기록해 직전 분기보다 1.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분기 신규 공급된 '강남타워'에 KB부동산선박, 비트코인거래소 코빗, 롯데자산개발공유오피스 워크플렉스 등이 입차 계약하며 공실 면적을 흡수한 데 따른 감소다. 이신철 기자 camus16@

금주의 분양캘린더

1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 9770가구가 공급된다. 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주에는 수도권 5933가구, 지방 383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경기 수원시 고등동 '수원역푸르지오' (지구주민우선공급분), 경기 평택시 서정동 '평택고덕신촌희망타운', 광주 남구 월산동 '광주남구반도유보라' 등 11개 사

업장이다. 모텔하우스는 5개 사업장에서 오픈한다. 인천 부평구 산곡동 '쌍용더플레티넘부평',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역우방이유셀', 강원 춘천시 은의동 '춘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 등이 개관을 준비 중이다.

계약이 진행되는 단지는 16곳이다. 경기 고양시 식사동 '일산자이3차(A2)', 경기 의정부시 기능동 '의정부더샵파크에비뉴', 경기 성남시 대장동 '판교더샵포레스트',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 등이다.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오픈	경기	화성시	송산면	송산대방노블랜드6차(EAA12)					
1/14 (월)	접수	경기	수원시	고등동	수원역푸르지오자이(공공분양) (~1/16)	1/17 (목)	접수	서울	광진구	자양동	광진테라멜리스건대2차 2순위				
				강원	원주시			태장동	원주태창(국민임대)천년나무6단지 1,2,3위(~1/18)	경기	하남시	감일동	하남감일B3(공공분양) 1순위(~1/18)		
				경남	김해시			장유동	김해올하2A1(국민임대) 1,2,3위(~1/16)	광주	남구	월산동	광주남구반도유보라 1순위		
				전남	진도군			진도읍	진도동의(영구임대) (~1/25)	1/18 (금)	오픈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역우방이유셀
				전북	전주시			송천동2가	전주에코마니시티현대선앤빌 ♣						
				충남	아산시			배방읍	천안아산신도시코아투테크노시티 (~1/15) ♣						
1/15 (화)	접수	서울	광진구	자양동	광진테라멜리스건대2차 1순위 (당해지역)	경기	평택시	서정동	평택고덕신촌희망타운(공공분양) (~1/16)						
1/16(수)	접수	서울	광진구	자양동	광진테라멜리스건대2차 1순위 (기타지역)	접수	광주	남구	월산동	광주남구반도유보라 2순위					
1/17(목)	오픈	경기	화성시	송산면	송산대방노블랜드5차(EAA5)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檢, '업무 방해' 한국지엠 노조 불기소 가닥

産銀 소송 취하 따라...경찰에 '각하 의견 송치'

KDB산업은행이 한국지엠 노동조합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노조 사건을 맡은 인천지검은 산은이 고소를 취하한 데 따라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기로 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부평경찰서에 각하 지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부평경찰서는 조만간 각하(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각하란 고소, 고발인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사건 자체를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인천지검의 이번 각하 결정은 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 고발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사건을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

지 않은 상황에서 고소가 취하돼 수사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가 진행된 상황이었다면 각하 여부가 달라졌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산은은 지난해 10월 19일 한국지엠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안과 관련해 주주총회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노조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주주총회 의결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한국지엠 노조의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업무방해 외에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범죄 적용 가능성을 놓고 법리 검토를 한 뒤 보완 수사를 하라는 취지로 경찰에 다시 내려보냈다. 그러나 산은과 한국지엠이 법인 분리안에 합의하면서 노조에 대해서도 소 취하가 이뤄졌다. 윤한슬 기자 charmy@



산천어야 어땀니 13일 오전 강원 화천군 화천천 일대에서 열린 '2019 화천산천어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얼음 위에 엮드려 산천어를 찾고 있다. 연합뉴스 김면수 기자 tearand76@

내 연봉 순위는...

납세자연맹 '연봉탐색기 2019' 오픈

본인의 연봉만 입력하면 전체 근로자 중에서 순위를 알려주는 '연봉탐색기 2019'가 새롭게 선보였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3일 "1년 동안(2016년 기준) 만기 근속한 근로자 1115만 명 중 나의 연봉순위와 연봉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는 '연봉탐색기 2019'를 서비스한다"며 "연봉순위뿐만 아니라 내가 실제로 내는 세금과 실수령액, 절세비율, 연봉에 맞는 각종 세테크 팁까지 제공해 합리적인 지출계획을 세우려는 직장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이번 연봉탐색기는 2017년 국정감사 때 김승희 국회의원이 국민보협공단으로부터 받은 통계 자료를 입수하여 재가공 과정을 거쳐 1년 만근한 근로자의 연봉 데이터를 구축해 순위를 매겼다"며 "특히 연봉순위 이외에 제공되는 연말정산 정보들은 1000개 구간으로 세분화된 근로자의 소득자료를 활용해 신뢰도가 더욱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日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 잇따라

고법, 강제노역 히타치조센에 위자료 5000만 원 배상 판결

일본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 이후 유사한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 씨가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히타치조센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제노역에 동원된 피징용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소멸하지 않는

다"며 "히타치조센은 일본의 침략 전쟁에 적극 협조해 원고를 불법적으로 징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원치도 않는 노역에 종사하게 했다"며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씨는 1944년 국민징용령에 의해 일본 오사카 소재 히타치 조센소에 끌려가 1년 가까이 강제노역을 했다. 2014년 이 씨는 강제노역 등 히타치조센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명목으로 1억2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5000만 원을 인정했고, 히타치조센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한슬 기자 charmy@

대법 "층간소음 해결 위해 단전...경찰관 조치는 적법"

"경범죄 막기 위한 직무상 권한"

층간소음을 제지하기 위해 전기를 차단한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모(51)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문 씨는 2016년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전기를 차단하자 흥기를 들고 나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2015년 12월~2016년 6월까지 고성과 욕설, 시끄러운 음악소리 등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 문 씨의 집을 20여 차례

방문했다. 사건 당일 비슷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욕설을 하는 문 씨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전기를 차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재판은 경찰이 임의로 전기를 차단한 행위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적법한 조치였는지가 쟁점이 됐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이뤄지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절박한 사태에서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 직무집행인 것으로 규정한다.

1심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이웃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경찰관들의 단전 조치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의 예방을 위한 경고라고 볼 수 없다"면서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문 씨의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인 만큼 경찰관들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정에 가까운 한밤 중에 음악을 크게 켜놓거나 소리를 지른 것은 경범죄처벌법에서 금지하는 인근소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찰관들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행위를 막고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려 했으나 피고인이 소란행위를 멈추지 않아 제지한 것은 직무상 권한이자 의무"라고 밝혔다. 장효진 기자 js62@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 공감 매거진 **BRAVO My Life**

2019. 01. 14. - 19.

특별기획: 1958년 12월 14일, 김현숙의 인생 이야기

세계를 호령한 여배우 김현숙

사랑스러운 아내이자 강인한 리더

이제는 떠났지만 여전히 우리 곁에

남들이 모르는 김현숙, 누구보다 노년기에 보내고 싶은 인생의 마지막 고수가 된다

Guru

COVERSTORY 광내고 기름칠하면 고수가 될 수 있다

PART1. 고수의 품격 - 멈추지 않는 한, 누구나 인생 고수가 된다

PART2. 대한민국 고수를 모일 - 구구(gugu)가 되기 위해 온천 연출협동조합

PART3. 도전의 고수 - 최고령 보디빌더 서정강 씨, 인스타그램 스타 김석재 씨

PART4. 생활의 고수 - 도시 속, 미용 고수 정성미용실 신상순 씨

PART5. 재능의 고수 - 외국에서 더 많은 성공공예작가 이소라 씨

PART6. 숨은 고수를 다 모여 - '숨고' 숨은 고수를 찾습니다!

PART7. 누구나 고수가 될 수 있다 - 노년기자들의 답론

월레이징 머릿속 폭탄 뇌졸중, 의심되면 무조건 응급실 찾아야

흔히 중풍으로 불리는 뇌졸중은 중장년의 대표적 질환 중 하나. 특히 겨울철엔 더욱 속을 썩인다. 보이지 않는 뇌 속에서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시한폭탄인 데다, 후유증이 고생하는 주변의 시선을 보면 불안감은 배가된다. 게다가 '말년'임, 즉 발병 후 적당한 치료시기를 놓치면 뇌파라는 사실은 더욱 시니어를 속인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을까. 전문의들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과 서관덕(徐權德)·4대 고수를 통해 뇌졸중에 대해 알아봤다.

박원식이 만난 귀촌 사람들

말리지 매 난 일박에 몰라

겨울 길바람이 맨처음 몰아치는 산골이다. 마을의 품은 널찍해 한창한 맛을 풍긴다. 산비탈 따라 층층이 들어선 주택들. 짐집마다 시원하게 탁 트인 초창을 자랑할 게다. 가구 수는 50여 호. 90%가 귀촌이나 귀농을 한 가구다. 이 귀촌 귀농 바람은 바야흐로 거센 조류를 달아간다. 마을 이장은 김중용 씨. 그는 이 마을에 입당한 1호 귀농인이다. 그의 소개나 추천에 이따금 이곳으로 향하는 귀촌인도 많다고.

신라비가 만난 사랑

잘 다스린 상처는 아픔을 견디는 힘이 된다

최현숙 구술생애시 작가

요만(약) 실려낸 영마의 음식 '재민치' 해외까지 알려졌어

한식 전도사 배우 김수미

미니팝이 역사를 만들고 절제가 찾아지게 한다

주한 외교관들에게 사랑받는 '복터 김'

타박타박 도보여행 피란수도 부산의 추억을 더듬는 길 '초랑이바구길'

수도권 기온이 영하로 푹 떨어진 날, 부산에도 도착했다. 평소대로라면 부산역 옆 돼지국밥 골목에서 국밥 한 그릇 먹어보고 여행을 시작했을 것이다. 오늘은 초랑이바구길에서 사탕국밥을 먹기로 했다. 구수한 사탕국밥을 호호 불어먹고 먹음 생각에 발걸음이 빨라졌다.

머니테크 한겨울 녹이는 뜨거운 예금 열풍... 이자가 워글래 '고금리 안전지대로...'

코스피지수가 한때 연 고점 대비 20% 넘게 추락하는 등 격렬하게 요동치면서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자들의 손실이 크게 늘었다. 금융 전문가들은 2019년 금융시장도 변동성이 클 것으로 내다본다.

시니어 밭상
홈메이드 사찰음식 당뇨에 좋은 한 끼로 새해는 더욱 건강하게

부치지 못한 편지
꽃 피는 날 전화를 하겠다고 했지요 이규리 시민

'일의 미래' 각광받았지만 '과대표장' 지적도

'각 이코노미'의 허와 실

IT 기술과 공유경제의 발전에 힘입어 '일의 미래'라며 각광을 받아온 '각 이코노미'에 대한 회의적인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각 이코노미라는 새로운 경제 형태를 놓고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와 결점이 있는 데이터 등에 의해 그 영향력이 과장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고 지난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개했다.

미국 프린스턴대학의 앨런 크루거 교수와 하버드대학의 로런스 카츠 교수는 자신의 2015년 조사가 각 이코노미를 과대평가했다며 이를 수정하는 새로운 논문을 내놓았다. 두 교수는 각 이코노미 분야의 전문가로 손꼽히고 있다.

4년 전만 해도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버의 등장 등으로 근로자들이 단기 계약

의 7.4%에서 낮아졌다. 크루거와 카츠 교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을 크게 두 가지로 진단했다.

첫 번째는 경기침체 여파가 여전한 2010년대 초반에는 오랫동안 고용시장이 위축된 상태여서 상대적으로 각 이코노미가 팽창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각 이코노미에 속한 활동 대부분은 미국의 노사

2010년대 초반 고용시장 위축으로 임시직 늘었지만...
경기 회복 이후 근로자들 익숙한 기존 노동형태로 복귀
근로자 점직 여부 등 파악 못해 규모 측정 방법도 부실

미국 실업률과 대체취업자 (각 이코노미 근로자 포함) 비중 추이 (단위: %)



을 통해 자유롭고 자율적인 새로운 업무방식을 채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했다.

그러나 미국 노동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각 이코노미에 따른 고용시장의 변화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업에 직접 고용돼 있지 않는 각 이코노미 근로자는 노동부 통계에서 '독립 계약자'에 포함된다. 2017년 5월 기준 전체 취업자에서 '독립 계약자' 비율은 6.9%로, 오히려 2005년 2월

관계를 둘러싼 항구적인 변화의 전조라기 보다는 사람들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찾은 임시직이었다. 경기가 회복하면서 근로자들은 익숙한 기존 노동 형태로 돌아갔다.

둘째로 각 이코노미를 측정하는 조사가 여전히 미비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부는 한 근로자가 여러 개의 직업을 겸직할 경우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지난해 6월 6일(현지시간) 우버 드라이버가 운전하고 있다. 우버 등 공유경제가 발전하면서 각 이코노미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으나 최근 그 영향력이 과대평가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호놀룰루/AP뉴시스

각 이코노미 (Gig Economy)

기업이 그때그때의 수요에 따라 근로자를 단기 계약적으로 고용해 일을 맡기는 경제 형태를 뜻한다. 1920년대 미국에서 재즈 공연 인기가 치솟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연주자들과 단기 계약을 맺던 것을 뜻하는 '각'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

있다.

과거에는 이렇게 각 이코노미가 과대표장된 이유를 짐작하기도 어려웠다고 WSJ는 지적했다. 각 이코노미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가 거의 없었기 때문. 노동부는 2005년 이후 독립 계약자나 부정기 근로자, 파견직원, 협력업체 직원 등 다양한 형태의 대체취업을 조사하고자 거듭해서 예산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기 일쑤였다. 각 이코노미 직업 대부분이 대체취업 형태에 속한다.

우버 운전기사들의 자유로운 근무 방식이 눈길을 끌면서 크루거와 카츠 교수가 각 이코노미 가능성에 주목한 첫 논문을 발표한 2015년까지 상당한 수의 기업이 다양한 산업에 각 이코노미를 적용하려 했다. 여전히 최근 10년간 유용한 데이터는 수집되지 않았다.

두 교수는 자신들의 과거 분석조차 과대표장했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크루거 교수는 "새로운 증거를 조사한 결과 카츠와 나는 지난 10년간 전체 취업인력에서 비전통적인 근로자 비율이 완만하게 높아졌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당초 우리가 분석했던 5%포인트 확대가 아니라 아마도 1~2%포인트 상승에 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교수는 이전에 2005~2015년 각 이

코노미 종사자가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7%에서 15.8%로 높아졌다고 추산했다.

조사 자체에도 결함이 발견됐다. 두 교수가 과거 노동부의 설문 문항 답변을 상세히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배우자에 대한 질문에 부업을 언급한 예가 극히 적었다. 아울러 두 교수는 자체 설문조사와 노동부 결과를 같이 놓고 비교했는데 자신들의 조사에는 배우자 항목이 없어 오차를 수밖에 없다.

카츠 교수는 "이런 요인은 우리의 당초 비교를 왜곡하고 있었다"며 "장기간에 걸쳐 노동 트렌드를 측정하려면 일관된 조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살 때 타. 팔 때 타. 투자 타이밍이 더 유익하다. 티레이더

인공지능 트레이더가 주식부터 펀드까지 투자 타이밍을 알려준다

선생님, 투자하는 의뢰는 언제?

쉽다. 허와 실만 보

각 이코노미 성공 열쇠는 '일자리 질'

고용률 등에서 각 이코노미의 효과가 과장됐다는 회의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전 세계 실업률이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눈길을 끈다. 전례 없는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저임금 기조와 유연한 노동시장이 실업률을 낮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가 지난해 말 세계 생산량 84%를 담당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48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실업률이 5.2%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8%)에 비해 하락한 것은 물론이고 1980년(5%) 이후 4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아렌드 캅테인 UBS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산업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임시직을 구해 일을 맡기는 '각 이코노미'가 등장하고 저임금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대되면서 여러 국가에서 자연실업률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해 선진국의 실업률이 197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5.2%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유엔 국제노동기구(ILO)가 최근 발표한 2018년 세계 실업률은 5.5%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남아있는 일자리의 노동조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은 앞으로 각 이코노미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즈(FT)는 지적했다. ILO의 산토밀라시 이코노미스트는 "유럽과 북미 지역은 물론이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실업률이 어느 때보다 낮지만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밀라시 이코노미스트는 "특히 남부 유럽의 많은 인구가 풀타임 직장이 없어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며 "신흥국 노동자 대부분이 이러한 '비공식 경제' 하의 매우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다운 기자 gamja@

유안타증권 元大證券

티레이더 www.tRadar.co.kr | 고객센터 1588-2600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대상, 환매방법, 수수료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당사 온라인 주식매매수수료는 0.065% 등이며, (해외)주식 수수료는 홍콩 0.3%, 상해(A 0.3%) 기타수수료 및 매매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티레이더, 티레이더펀드 서비스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한 보조 서비스로 수익달성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금융투자 협회 심사필 제18-01051호(2018.03.06 ~2019.03.05)

'신재민 사태'로 주목받은 '바이백·적자국채'는 뭐지?



김남현의 일가일부

국고채 발행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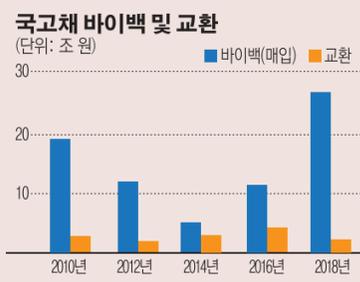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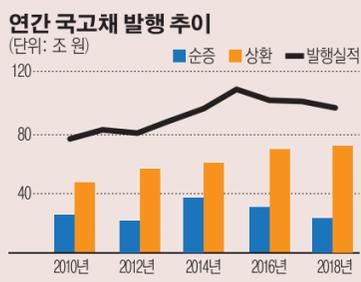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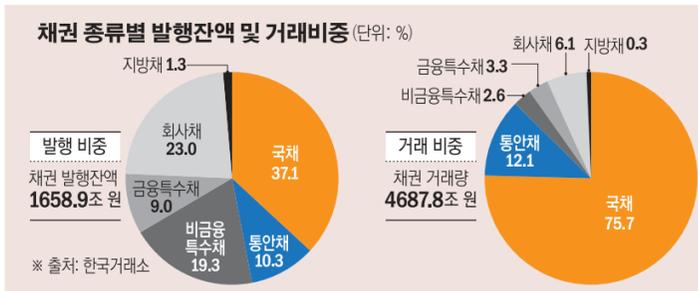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사태로 주목받은 것이 바이백(Buy-Back·조기상환·매입)과 적자국채라는 용어다. 그 생소함에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취재에 나선 기자들까지도 갑작스레 열공(열심히 공부)모드에 들어가야 했다. 또 잘 모르는 점에 이르면 사태를 이해하는데 여러 오해와 억측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다. 이를 계기로 정부의 국채, 좀 더 정확하게는 국고채 발행제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IMF 외환위기가 국고채 시장 발전 계기 = 정부가 국채 발행을 본격화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부터다. 정부가 1950년 처음으로 건국국채를 발행한지 50여년만이다.

외환위기 직후 국채발행이 본격화한 것은 두 가지 이유로 풀이된다. 우선 외환위기를 타계하고자 정부에서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를 위해 정부가 그만큼의 빚을 져야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IMF 이후 무너진 채권시장을 재정립할 필요성도 있었다. 즉 IMF사태로 많은 기업들이 쓰러져 가면서 그동안 채권시장의 지표채권 역할을 했던 담보부 회사채 시장이 사실상 붕괴됐다.

이후 국채시장은 비약적 발전을 거듭했다. 1997년 2조1000억 원이던 연간 국고채 발행량은 2015년 109조3000억 원을 기록하며 50배 넘게 성장했다. 2017년말 기준 상장채권 발행잔액은 1658조9000억 원, 거래량은 4687조8000억 원으로 이중 국채 비중은 각각 37.1%(국고채 33.0%)와 75.7%(국고채 67.9%)를 차지하고 있다.

국채는 총 네 종류로 각 기금 및 회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고채와 정부의 일시적 재정부족자금을 보전하기 위해 만기 1년 이내로 발행하는 재



IMF 이후 발행 본격화... 국고채·재정증권·1종국주·외평채 4종 정부, 재정 확대·채권시장 재정립 위해 발행... 국회 승인 거쳐야 신재민 사태, 세수호조 속 적자국채 발행 여부 검토 중 불거져 당시 바이백 진행됐다면 韓美 금리인상 맞물려 시장 충격 줬을 듯

정증권, 국민주택채권,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 채권의 기준금리를 제시하기 위해 외화표시채권으로 발행하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채)이 있다. 이중 국고채는 국가재정자금 조달의 핵심 수단이자 국내 채권시장의 지표채권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다.

국고채 종류는 현재 고정금리인 3년과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만기물과 인플레이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와 연동하는 10년 만기 물가연동국고채(물가채)가 있다.

◇발행근거 법 명문화, 국회 의결 거쳐 정부 연간·월간 발행계획 발표 = 국채나 국고채 발행 역시 법에 엄격히 명문화하고 있다.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헌법, 국가재정법, 국채법 등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국채를 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헌법 제58조는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 국채발행에 대한 기본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18조에서도 '국가는 세출은 국채·차입금 외에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고채 관련 입찰방식이나 국고채전문딜러(PD), 조기상환, 교환 등 세부적 사항은 기재부 고시인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고, 국채사무처리 기관은 한국은행에서도 국채 발행과 상환 등과 관련해 '국채사무취급절차'를 두고 있다.

이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매년 8월말경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국고채 발행안을 포함해 국회에 제출한다. 이를 12월 초 정기국회에서 확정하면 다음년도 최종 예산과 국고채 발행물량이 결정된다.

기재부는 이를 바탕으로 연말경 연간 국고채 발행계획을 발표하고, 매월말엔 다음 월 국고채 발행계획을 내놓는다. 월간 국고채 발행계획에는 만기물별 경쟁입찰 물량규모와 함께 바이백 및 교환 여부 및 해당종목 등이 포함된다.

한편 국회에서 확정하는 국고채 발행물량에는 총액은 물론 순증과 상환용으로 구분돼 있다. 순증이란 정부가 빚을 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계획한 적자국채 물량과 외평채 등 기타물량을 포함한 개념이다. 상환이란 만기도래에 따른 만기상환물량과 바이백 및 교환인 시장조성용 물량

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 국고채를 발행 중 순증용 금액을 상환용으로 돌릴 수는 있어도 상환용을 순증용으로 옮길 순 없다. 순증용을 상환용으로 사용하더라도 20% 범위 내에서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20%를 초과할 경우에는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고로 기금운용위원회는 기재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부처 장관과 민간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2017년 11월에 무슨일이... 바이백 취소 안했으면 12월 물량 최대 13.4조 댔을 것 =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적자국채와 바이백 취소 사태는 2017년 11월 벌어진 일이다. 사건의 팩트를 일부 기술하면 당시 그해 남은 적자국채 물량 8조7000억 원을 발행할지 말지를 놓고 청와대와 기재부 고위공무원들, 신 전 사무관이 갑론을박을 벌인 것이다. 이 와중에 11월 15일로 예정돼 있던 바이백 1조 원은 하루전인 11월 14일 갑작스레 취소됐다.

그해 국회로부터 승인받은 총 국고채 발행 물량은 103조7000억 원이었다. 이중 적자국채 28조7000억 원을 포함한 순증용 물량은 37조6000억 원이었고, 바이백 등 상환용 물량은 66조1000억 원이었다. 결과적으로 남은 적자국채 8조7000억 원은 11월과 12월 사이 발행되지 않으면서 적자국채용 국채는 그해 20조 원만 발행됐다. 바이백과 교환은 총 19조4000억 원 규모로 실시됐다.

여기서 일반인들이나 기자들, 심지어 전문가들조차 사건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점을 세 가지 측면에서 풀어보면 우선 바이

백을 취소하고 이 재원으로 적자국채를 발행해 국가채무비율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다. 앞서 설명했듯 적자국채가 포함된 순증용과 바이백이 포함된 상환용은 사실상 판 주머니다. 바이백 1조 원을 취소했다고 해서 남은 적자국채물량 한도가 9조7000억 원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또 바이백과 교환에 대한 개념의 혼재에도 있었다. 바이백은 일단 기존 시장에 풀려있는 국고채를 기재부가 매입해 소각하는 개념이다. 반면 교환은 국고채 경과물(구 지표물들)들을 매입하는 대신 신규물(지표물)로 교체해 주는 개념이다. 즉 바이백은 경과물을 매입하고 시장에 현금을 주는 개념인 반면, 교환은 경과물을 매입하고 새 물건(국고채)을 주는 개념이다.

이밖에도 바이백 재원을 무엇으로 하는냐는 점이다. 기재부의 해명대로 매입재원을 기존 국고채 신규발행을 통해 조달한 경우엔 사실상 국고채 잔액과 국가채무비율엔 변동이 없다. 이 경우를 사실상 시장을 둔 교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한편 바이백이 갑작스레 취소된 배경은 실제 바이백이 진행됐을 경우 그만큼 상환용 재원으로 국고채를 발행해 자금을 채워 넣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바이백이 진행됐다면 그해 12월 국고채 발행계획 물량은 최대 13조4000억 원이 댔을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하고 있다. 이는 당시 월 계획물량 5조 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당시 미 연준(Fed)과 한은 금리인상과 맞물려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2019년에는 '짧게, 당당하게, 매력 터지게' 말해보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해야 할 때, 평소 대화할 때, 상대를 설득을 해야 할 때 이 책의 말하기 기술을 떠올린다면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기회들을 발판삼아 '당당한 나, 매력적인 나'의 모습을 찾아보자!

- 상대의 '심리를 지배하는' 말하기
- 상대의 '마음을 훔치는' 말하기
- 상대를 '행동하게 만드는' 말하기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ASK KB 증권

물어보세요! KB증권이 또 어떤 길을 개척할지

복합점포 확대, 비대면 계좌개설로 증권의 새로운 길을 열고
베트남 진출로 해외 투자의 성공적 길을 열어가는 KB증권!

국민의 투자에 힘이 되도록
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KB증권은
그 어떤 투자의 물음에도 답하겠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8-04211호(2018년 10월 22일~2019년 10월 17일)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 청취 후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KB 증권

“아들이 먹어보더니 계속 달라 해 성공 예감”

‘한글젤리’ 히트상품 기획, 이인규 흠플러스 익스프레스 바이어

어린이·외국인 한글공부 겨냥...자음·모음 모양 본떠 만들어 쫄깃한 식감 찾으려 하루종일 시중 판매 40여종 시식하기도

“한글젤리는 어린이들이 한글을 더욱 재미있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게 합니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이 많아지고 있어 이들의 감성도 충족시킬 것으로 생각했어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서 뜨거운 인기를 얻은 과자 중 하나가 ‘한글젤리’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본떠 만든 이상품은 한글 교육 효과에도 적합해 지난해 말 출시된 후 단숨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화제로 떠올랐다.

한글젤리를 기획한 주인공은 이인규 흠플러스 익스프레스 공산품팀 바이어(과장)다. 이 과장은 ‘한글젤리’의 인기 비결로 최상의 식감과 젤리로 다양한 단어를 만들어보는 즐거움을 꼽았다. 그는 “한글 모양 젤리로 단어를 만들어 보는 재미가 아이와 여성 등의 고객에게 주효할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한글젤리’처럼 제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상품을 실제로 출시하고 좋은 반응을 얻어 기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획 과정이 탄탄대로였던 것만은 아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 이 과장은 “처음에 접착한 중견기업은 3개월가량 준비하다가 무산됐고, 2차로 의뢰했던 대기업은 흠플러스라는 하나의 채널만을 위한 상품이라는 이유로 없던 일이 됐다”며 “한글젤리 개발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에 기적처럼 지금의 협력업체를 만나게 됐다”고 떠올렸다.

최상의 쫄깃한 식감을 찾기 위해 국내외 시중에서 판매하는 젤리 40여 종을 시식해



이인규 흠플러스 익스프레스 공산품팀 바이어는 “어린이를 비롯해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의 감성을 충족시킬 것으로 생각해 한글젤리(왼쪽 사진)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흠플러스

봤다는 이 과장은 “협력업체 담당자와 함께 하루종일 젤리를 시식했다”면서 “실제로 제작에 들어갔을 때 공장에 직접 가서 첫 젤리의 탄생 순간을 마음 졸이며 지켜봤다”고 했다.

이 과장은 한글젤리가 히트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가 먹는 젤리이다 보니 제 아들에게 직접 샘플링 시식을 했는데 신기해하면서도 계속 달라고 우는 바람에 성공을 예감할 수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가 히트시킨 과자류는 한글젤리뿐만이 아니다. 막걸리 소비 진작을 위해 1960~1970년대 ‘막사이다’의 맛을 구현한 천연탄산 생막걸리 ‘막사이’도 그가 기획한 상품이다.

이 과장은 한글젤리 후속 제품 기획에 한창이다. 그는 “‘사직연산·숫자’ 콘셉트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 외에도 와사비·치즈가 들어간 비스킷을 곧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나 유럽의 지역 명물 과자가 유명하듯이 우리 고유의 지역 특성을 지닌 명물 과자들을 익스프레스라는 거점을 통해 널리 알리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남주현 기자 jooh@



김현미 장관, 폴란드·스페인 방문 스마트 도시 협력·철도 수주 지원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와 지능형도시(이하 스마트시티) 관련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폴란드와 스페인을 방문한다.



국토부는 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인프라(기반시설) 협력단이 14일부터 18일까지 폴란드, 스페인을 찾는다. 이번 협력단은 단순 시공사업 도급에 대한 수주지원을 넘어 철도·스마트시티 등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시장 다변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good@

한국팜비오 중앙연구소장 조용백

한국팜비오가 한국프라이미엄 연구개발 본부장을 지낸 조용백(사진) 씨를 중앙연구소장(전무이사)으로 영입하는 등 임원 승진인사를 단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입 조용백 전무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박사로 최근까지 한국프라이미엄 연구개발본부장을 지냈다.

한편 한국팜비오는 개발부 최기환 상무이사를 전무이사로, 서울중병사업부 남창우 이사대우를 이사로, 바이오사업팀 유광현 부장을 상무부로 각각 승진 발표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현대중공업그룹·에쓰오일 신년 산행으로 성공 다짐



현대중공업그룹은 권오갑 현대중지주 부회장과 한영석·가심현 현대중 사장, 신현대 미포조선 사장을 비롯한 그룹사 7곳 임원 140여 명이 경남 울주군 간월산에 올라 임원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대외 환경 속에서 조선업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제일의 위상을 되찾자고 다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에쓰오일은 서울 우이령길에서 임원과 부장급 이상 직원 200여 명과 함께 트래킹 행사를 갖고 한찬 새해 각오를 다졌다고 13일 밝혔다. 산행에 나선 알 감디 CEO는 우이령길 교현탐방지원센터(경기도 양주시)에서 우이동(서울시 강북구)에 이르는 6.5km 구간을 걸으며 임직원들과 새해 덕담을 나누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변효선 기자 hsbun@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 2018’ 수상 고교생 해외 견학 진행

한화그룹이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 2018’ 수상 고등학생들을 초청해 △독일 한화규셀, 에너지캡퍼스△튀르베르크, 친환경도시 △프라이부르크,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 등을 견학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8월에 개최된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 2018’에서 은상 이상을 수상한 5개팀 고등학생 10명과 수상자 모임인 ‘한그루’의 회장인 윤경원 학



생(KAIST 재학)도 참가해 수상자 선배가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는 8년간 누적 참가자수 1만 명을 넘어선 국내 최대 규모의 고등학생 과학경진대회다.

김유진 기자 eugene@

NH투자증권 목표달성 결의대회 “자본시장 대표 플랫폼 플레이어”

NH투자증권은 정영채(사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240여 명이 참석해 ‘2019년 목표달성 결의대회’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11일부터 1박 2일간 경기도 일산 NH인재원에서 열린 목표달성 결의대회는 NH투자증권이 매년 연초에 주요 임원과 전국 부점장들이 한데 모여 회사의 경영전략을 공유하고 경영목표 달성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연례행사다.



정 사장은 “올해에도 고객가치를 위한 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2019년은 NH투자증권이 자본시장의 대표 플랫폼 플레이어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뜻깊은 해로 만들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자동차기자협 사무국장 김상원

한국자동차기자협회(회장홍대선)는 올해 집행 임원을 구성하고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초대 사무국장은 김상원(사진) 전 한국지엠(GM) 홍보담당 상무를 선임했다.



협회는 올해 집행위원을 선임하며 9대 회장으로 홍대선 한겨레신문 기자를 재선 임했다. 나아가 협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아온 사무국장 윤태구 아주경제 기자는 수석부회장으로 인사 발표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인사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과·팀장급 전보) △안정정책팀장 성현국
- ◆환경부 <국장급 전보> △자연보전정책관 이호중
- ◆수출입은행 <부서장급 승진> △비서실장 황정욱 △경영혁신실장 김진섭 △인사부소속 부장(연수) 이운창 △인사부소속 부장(연수) 이준재 △인사부소속 부장(연수) 위찬정 △인사부소속 부장(연수) 임경섭 <부서장급 전보> △심사평가단장 전현철 △해양금융단장 정호섭 △연신총괄부장 강정수 △인사부장 홍순영 △인사부(인재개발원장) 배성규 △인사부(운영지원팀장) 이윤관 △해양구조조정T/F 부장 안종혁 △투자금융실장 홍성훈 △중소중견금융1부장 모창희 △중소중견금융1부(천안수출중소기업지원센터장) 박태익 △중소중견금융2부장 류창열 △기업개선부장 정두화 △경협총괄부장 박종규 △사

- 업협력부장 이재홍 △경협사업1부장 엄성용 △남북협력총괄부장 유연갑 △해양프로젝트금융부장 주상진 △국제투자실장 신유근 △기술환경실장 류현하 △대전지점장 전시덕 △청주지점장 박경순 △북경사무소장 이삼형 △두바이사무소장 이도형 △타슈켄트사무소장 조인규 △하노이사무소장 김재화 △프놈펜사무소장 이해경 △아디스아바바사무소장 남중현 △콜롬보사무소장박대규 △수은인니금융회사 사장 조용민
- ◆암릉코리아 <승진> △부사장 강미숙 △이사 구선미
-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주최 문화부장 구영희
- ◆한국스포츠경제 <부국장> △산업·경제부 오성철 △금융·증권부 한동수 △ICT·유통부 이승제 <부부장> △뉴미디어 경영연예·문화부 유아정 <부장> △광고마케팅국 AD1부 이태우 △광고마케팅국 AD2부 이규원

부음

- ‘통일교 2인자’ 박보희 전 세계일보 사장이 12일 오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0세.
- 1930년 충남 아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1950년 육사 2기 생도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이후 주미 한국대사관 무관 보좌관과 선화학원 이사장, 미국 뉴욕시티트리분 발행인, 워싱턴타임즈 회장 등을 지냈다. 1991년 11월 세계일보 사장에 취임해 약 3년간 회사를 이끌었으며, 1994년 7월 김일성 북한 주석이 사망하자 북한을 방문해 직접 조문하기도 했다. 육사 출신으로 영어 실력이 뛰어난 고인은 1970년대 통일교가 미국에서 교세를 넓히던 시기 문선명 세계 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의 연설을 영어로 통역하며 ‘문선명의 오른팔’ 역

- 할을 해냈다. 박 전 사장은 딸 박훈숙(현 유니버설발레단 단장)이 문 총재 차남과 정혼 관계였을 정도로 문 총재와의 인연이 깊다. 문 총재 차남이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자 박훈숙은 영혼결혼식을 올린 뒤 성씨를 바꾼 문훈숙이 됐다.
- 고인의 유족으로는 문훈숙 유니버설 발레단 단장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5일이다.
- ▲이영숙 씨 별세, 박건영(브레인자산 운용 대표이사 사장), 중환(교보생명 울산센터장), 현애(구암고등학교 교사), 현주 씨 모친상, 은희철(선일일렉콤 이사), 김일호(청도군청 계장) 씨 장모상, 이진숙 씨 시모상 = 13일,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205호실, 발인 15일 오전 6시 30분, 053-200-6464
- ▲김병곤(풍기동부교회 안수집사) 씨 별세, 황찬미 씨 남편상, 김민준 씨 부친

- 상, 김진숙·영숙(수원 성빈센트병원)·필너 씨 동생상, 김준근(삼성전자 부장) 씨 형님상, 최원석(현대엔지니어링)·지상훈(목사) 씨 처남상 = 13일, 경북 영주시 성누가병원 1분향실, 발인 15일 오전 7시 30분, 054-635-4444
- ▲김춘자 씨 별세, 박대영(삼성디스플레이 상담역) 씨 모친상 = 12일, 서울삼성병원 17호실, 발인 15일, 02-3410-6929
- ▲양해숙 씨 별세, 강준구(예비역 육군 중령) 씨 부인상, 강병태(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사장)·병민(둔촌중학교 교사)·연희(CJ홈쇼핑쇼호스트)·병훈(서울도시가스 차장) 씨 모친상, 문혜선·유혜규(지외수출판 대표)·박은선 씨 시모상 = 13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실(14일), 발인 15일 오전 8시, 1599-3114
- ▲홍성오 씨 별세, 박승근(KT에스테이트 커뮤니케이션TF장) 씨 장인상 = 12일,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층 3호, 발인 15일 오전 6시, 031-787-1503

김성희의 인문경영



작가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본 '질문의 품격'

우문현답(愚問賢答),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답을 한다는 뜻이다. 이 말은 이론 상에서 가능하다. 질문과 답변은 공심은 데 콩나고 팔심은 데 팔나는 것과 같다. 어 리석은 질문엔 흐리멍덩하거나 노화한 답 이, 예리한 질문엔 명쾌한 답이 나온다. 어 리석은 질문인데도 현명한 답을 한다는 것 은 대답자 주도적인 청산우수 답변의 미화 된 표현일 뿐이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보고 안타까웠다. 국민이 궁금해 하는 현안이 쌓여 있었지만 질문 편치는 못했다. 허공 편치 내지 잔 썰만 날리느라 날리느라 정작 결정적 어퍼컷 공격은 하지 못했다. 허점을 깊이 파고들거나, 연달아 치는 편치도 없어 아쉬웠다. 질문의 강도 도, 심도도 시원치 않아 아쉬웠다. 좋은 질 문을 하기 위해선 나쁜 질문의 함정을 피 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먼저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 질문을 바탕으로 피해야 할 질 문 5계(戒)를 알아보자. 이는 일반 소통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거두절미(去頭截尾)형 질문은 피하라. 머리는 인사말을 뜻한다. 무거워도 안 되지만, 없어도 안 된다. 간결함은 머리,

몸, 마무리의 비율을 갖춘 것이다. 기본요 소를 생략한 채 무조건 짧은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외신과 국내인론 기자 질문에서 차이점 중 하나는 인사말이었다. 외신기자 들은 새해인사, 초대감사, 혹은 서투른 한 국말 등 나름 성의있게 인사말을 빼놓지 않 았다. 간단한 인사, 관등성명의 자기소개 등은 상호 긴장관계를 풀어주는 예의이자 윤택하다. 두세줄이면 충분하다. 초반에 의례적 인사가 지나치면 기분수지만, 없 으면 성급하게 보인다. 최근 안부를 물어보 는 가벼운 덕담형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다. 머리(소개, 인사)와 몸통 메시 지(주요 질문), 마무리(감사)의 비율은 2 대 7대 1 정도면 적당하다.

주객전도(主客顛倒)형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질문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영락없이 이런 유형이 눈에 띄었다. 본인 질문은 짧고 인 터뷰이의 답은 길게 하는 게 진짜 실력이다. 질문자 역할과 대답자 역할을 헷갈리 지 말라. 질문은 궁금한 것을 묻는 것이 지, 자신의 주장이나 지식을 자랑하는 것 이 아니다. 모니터에 띄울 자신의 질문 캡 션 한 문장을 연상해보는 것도 유용하다.

질문 요지 키워드를 사전에 요약, 정리해 가라. 내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보다 듣 기 위해 질문하라.

교토삼굴(狡兔三窟·영리한 토끼는 굴 을 세 개 판다)형 질문도 조심 사항이다. 한 사람이 한 번에 너무 많은 질문을 하면 파위가 약해진다. 공을 많이 던지면 한 가 지라도 받겠지 하는 꼼수거나, 다 중요하 다고 생각하거나... 어느 경우도 바람직하 지 않다. 답변도 지리멸렬해지기 쉽다. 강 약약 없이 약약약 나열형 질문은 비유하자 면 땅뽕이다. 한 사람이 3개 이상의 질문 을 연달아 하는 것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 는 것과도 같다. 정말 물어보아야 할 것을 선택해 집중하라.

사면초가(四面楚歌)형 질문을 피하라. 토끼몰이하듯 코너로 몰아대는 압박 질문 은 나이와 직급 불문 끈대스럽다. 진성 사 이다 질문은 무리함, 무례함보다 유연한 예리함에서 나온다. 유연성은 당당함과 정 중함의 균형에서 우러난다. 겸손함과 배려 는 굴종이 아니라 자신감의 표현이다. 범 인을 취조하듯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내 말이 맞지' 하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 니 너는 내 말대로 해)식 질문은 피하는 게

좋다. 질문이 아니라 신문(訊問)이다. 질 문은 상대방을 배려하며 생각을 묻지만, 신문은 나의 의견에 대한 동의를 강요한 다. 애초에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 의문문형('내 생각은 이런데, 그렇지') 혹 은 폐쇄형('네, 아니오로 답하게 하는) 질 문을 한다. 이보다는 "어떻게 생각합니 까", "대책은 무엇입니까" 등 상대방의 생 각을 묻는 개방형 질문을 하라. 과거 발언 대차대조 추궁보다 상대가 쓰고 있는 단어 의 구체적 의미를 다시 물어보는 것 등이 더 효과적이다. 동의를 구하기보다 의견을 구하라.

끝으로 격화소양(隔靴搔癢·신을 신고 가려운 데를 긁기)형 질문이다. 핵심은 피 한 채 변두리만 굵이굵이 돌아 답답한 고 구마 질문이다. 긴 배경 설명이 필요하다 면 '제 질문은/여쭙고자 하는 것은'으로 질문을 선두에 배치하라. 그리고 질문 배 경(이유와 근거)→사례(현장의 소리)→ 정리(앞의 질문과의 연계, 환기) 식으로 구성해도 깔끔하다.

이상의 5계만 지켜도 질문의 실력을 피하 고 품격을 높일 수 있다. 우문에 현답이란 없다. 질문이 현명해야 답도 선명해진다.

허공 편치 내지 잔 썰만 날리느라 정 작 결정적 어퍼컷 공격은 하지 못했다. 허점을 깊이 파고들거나, 연달아 치는 편치도 없어 아쉬웠다. 질문의 강도도, 심도도 시원치 않아 아쉬웠 다.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선 나쁜 질 문의 함정을 피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먼저다.



공병호의 독서산책

• 오노코로 신페이 '관계의 품격'

"선의"라며 상대방의 영역을 침해하는 사람들

인간관계 때문에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새해에는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 고생 하는 일을 피할 수 없을까? 지난 24년간 2 만4000여 명 의뢰인의 인간관계 개선 프 로젝트를 도운 일본 최고의 심리 카운슬러로 부터 한 수를 배워보자. 오노코로 신페이의 '관계의 품격'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 을 다룬 책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핵심 개념 은 자신과 타인 사이의 경계선을 뜻하는 '바 운더리'이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나의 영역이고, 그 다음부터는 당신의 영역이라 고 명확하게 선을 긋는 방법을 제시한다.

책을 펼치자마자 일상에서 빈번히 만날 수 있는 한 가지 사례가 소개된다. 벚은 속 웃을 빨래 바구니에 넣으라는 아내의 당부 에도 개의치 않는 남편 이야기가 등장한 다.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얘기지만 일상에 서 겪는 인간관계와 관련된 문제들은 대부 분 이와 비슷하다. 자기가 마땅히 책임져 야 할 일을 상대방에게 미룸으로써 갈등이

생겨나고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된 다. 선의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의 영역을 무시로 침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이가 들어가는 젊은이들에게 "왜 결혼하지 않는 가?"라고 만날 때마다 반복하는 것도 상대 방의 영역을 침해하는 일이다.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저자에게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시간과 공간을 타인에게 쉽게 내주지 않는 사람들이다. 한국 기준으로 보면 자칫 지나치게 이기적인 사람으로 비 쳐질 수도 있다. 한-일 간의 차이를 보는 것도 이 책이 가진 묘미다. 이 책의 독자들 이 타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 이다. 하지만 스스로의 말과 행동에 대해 서는 상당한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다. 새 해에는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타인의 도움을 청하지 않는 일 부터 시작해 보자. 그리고 타인의 일에 개 입할 때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자. 내 가 개입할 만한 일인가를 말이다.

인간관계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누군가에게 결정권을 빼앗긴 경우가 많 다. 이들은 큰 일뿐만 아니라 일상 속의 자 잘한 결정도 마찬가지다. 결정권이 없다는 것은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데 따르는 리스크를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데 익숙함 을 뜻한다. 이 같은 "결정습관"을 스스로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인간관계로 인한 문 제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상 대방이 지나치게 장황한 상태라면 이를 적 당한 선에서 매듭지고 상황을 종료하는 일 도 인간관계의 개선에서 중요하다. 역으로 자신이 이처럼 장황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도 인간관계의 개선에 필요하다. 저자는 가능한 한 대화의 호흡을 짧게 유지하면서 자신의 페이스에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G.F.E.R 대화법'을 추천한다. 목표(G)를 명확히 하고 사실(F)에 근거해서, 감정(E)을 담아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상 대방의 협조(R)를 요청하는 대화법이다.

만나기만 하면 불평불만을 잔뜩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다. 적당한 선에서 주의 전환 을 시도하면서 대화를 돌리거나 자리를 뜨 는 구체적인 방법을 읽으면 웃게 된다. 세 상에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제법 많기 때문이다. 습관적으로 불평불만을 늘어놓 는다는 것은 굳이 간여하고 싶지 않은 영 역으로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일과 같다. 상대방에게 말려들지 않는 것은 멋진 방법이다. 지금처럼 직직함 불황과 불만이 자욱 한 시대에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임에 틀림없다.

저자가 의뢰인들을 만나다 보면 의외로 인간관계가 소원해지는 일에 불안감을 갖 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듯이 인간관계도 변하는 것이 자연스 러운 일인데 사람들은 유독 인간관계에 대 해서만 불변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인간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만으로 도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실용서다. 공병호연구소장

이투데이, 말투데이

☆ 슈바이처 박사 명언

"성공이 행복의 열쇠가 아니라, 행복이 성 공의 열쇠다. 만약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성공한 것이다." "서른 살까지는 학문과 예술을 위해 살 고, 그 이후부터는 인류에 직접 봉사하기 로 마음먹었다"고 한 그는 독일 의사이자 '밀립의 성자'로 유명한 인도주의자. 그는 신학, 철학에서 일가를 이뤘지만 30대 중 반 의학 공부를 시작해 서른 여덟의 나이 에 교수직을 버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91 세까지 봉사의 인술(仁術)을 펼쳤다. 오 늘이 그의 생일. 1875-1965.

☆ 고사성어 / 대기만성(大器晩成)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중국 위(魏)나라 최염(崔琰)장군이 출세가 늦 어 친척에게 멸시 당하는 사촌동생 최림 (崔林)에게 한 말에서 유래했다. "큰 인물 도 성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 이다. 내가 보기에 너도 것처럼 대기만성 형이다." 후일 최림은 천자를 보좌하는 삼 공(三公)에 이르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나이 들어 성공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 시사상식 / 관심병(關心病)

다른 이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 가 지나치게 높아 병적인 수준에 이른 상 태. 이들은 타인에게 관심을 받으려고 인 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이목을 끌 만한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하기도 한다.

☆ 유머 / 빗나간 채치

학생이 교수 연구실로 찾아가 리포트를 공손히 제출했다. 과제물을 받아든 교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뵐새! 교수 이름을 잘못 쓴 것이었다.

그때 마침 열여든 창으로 바람이 불어와 책상에 있던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다. 학생 이 얼른 주어서 교수에게 건네주며 재지 있게 말했다. "아드님이 참 잘 생겼습니다."

교수의 대답. "팔이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삶연구소장

의료계가 우울한 뉴스로 한 해를 시작했 다. 세월에 날아든 고(故) 임세원 교수 피 살사건으로 의료계는 침통한 분위기다. 그간 일어났던 의사 폭행사건을 방지하 기 위해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던 터라 의료계 안팎의 충격은 더 크다.

의료진들 사이에선 임 교수의 송고한 죽 음을 안타까워하면서도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다. 애초부터 병원 내 있어야 할 안 전망의 부재로 대형병원 응급실 폭행사건 은 비일비재했다.

기자들과 얘기를 나눴던 한 의사는 "의료 진이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의무도 있지만 서비스의 질이 병원의 흥망성쇠를 가름하

기자수첩 노은희 유통바이오부/selly215@

임세원 교수의 죽음이 남긴 것

기 때문에 환자들과 연관된 불미스러운 일 이 발생하더라도 스스로가 방패막이를 자 처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결국 병 원 서비스가 강화되는 것과는 반대로 의료 진은 환자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위험에 노출돼도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

해 감내해야 할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늘 어난 것이다. 그나마 정치권이 나서 임세원 법 마련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 의료계에는 위안 이다. 최근 '의료기관안전기금' 설치를 위 한 법률개정안(의료법, 국가재정법, 국민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와 함께 청원경찰 상주 등 다양한 안전망이 마련될 전망이다.

임 교수가 떠난 지 2주가 지났지만 의료 계 안팎에선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그를 추모하는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의협도 1 월 한 달을 고 임세원 교수 추모의 달로 정 했으며 그의 저서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 는 독자들에게 새삼 재조명되기도 했다.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고로 친절할 태도를 잃지 않 으려고 노력한다"는 임 교수의 책 속 회고 처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사와 환자 모 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 김상우 | 편집인 김상철 | 논설실장 추창근 | 편집국장 김덕현 |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 대표전화 (02)799-2600 | 팩스 (02)799-1003 |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 구독·배달 (02)799-2684 |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다리면 기회는 온다

박스권 장세 속에 외국인과 기관이 나 름의 이유로 주가가 급락한 대형주를 타 기으로 저가 쇼핑에 열중하고 있다. 반면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시쳇말로 소위 '먹을 게 없는' 장의 연속이다.

개미들이 선호하는 코스닥 종목의 경우 가격 메리트도 딱히 없고, 뚜렷한 매수 주 체도 부재한 상황에서 각개 전투 외에는 달리 대안도 없는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 이다.

바람직한 종목 선정 방식은 아니지만 '테마' 부재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 오죽 하면 최근 '핑크퐁' 테마가 생기면서 몇몇 종목이 상한가를 가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 은데 눈에 띄는 종목이 없기 때문이다. 주 식투자자로 생활을 하는, 전업투자자 100만 명 시대의 자화상이다.

도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노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믿으면 중 독성이 강해지기 마련이다. 심판보다 본 인이 직접 동전을 던져 승패를 가르는 것 이 훨씬 흥미로운 이이다.

황영조가 강원도 바닷가를 달려 올림픽 금메달을 뒀다고, 나도 열심히 뛰면 금메 달리스트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없 다.

하지만 유독 주식시장 참가자들은 '1%의 재능'보다 '99%의 노력'을 신봉하 는 이들이 꽤 많다. 주식 관련 서적을 열 독하고, 나름의 투자일지를 쓰고, 차트를 아무리 열심히 분석해도 고수들이 즐비한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다는 사

데스크칼럼

이채용
자본시장1부장



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열심히 뛰었다고 누구나 올림픽 금메달리 스트가 될 수 없듯이 포커를 자주 친다고 모두 '도신(賭神)'이 될 순 없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명확한 이 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개미들이 연일 손실 을 보면서 빚을 내 주식에 또다시 빠져드 는 이이다.

'바다이야기' 승률은 48%, 강원랜드는 49%라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이 돈을 잃는 이유는 바로 1%, 2%의 손 실이 무한대로 반복되기 때문이다. 이런 작은 확률이 누적되면 엄청난 손실로 귀 결된다.

개인이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그나마 수 익을 내는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거 래 횟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다. 주식을 한 번만 사고 팔아도 매매 수수료(온라인 최저 수수료 0.015%×2)와 거래세(0.3%)를 합쳐 0.33%에 달하는 주식 게임 '참가비'를 지 불해야 한다.

1년 250거래일 동안 하루 한 번만 주식을 사고팔아도 1년에 원금의 82.5%를 수 수수료와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물론

몇 번만 잘못된 선택으로 손절매를 하게 된다면 손실폭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밖에 없다.

요즘처럼 아무리 둘러봐도 종목은 보이지 않고, 사방팔방에 악재만 노려볼 때 "쉬는 것도 투자"라는 말이 불현듯 떠오른다. 하락장이 깊어지면 그만큼 상승장이 다가오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 미로 해석할 수 있다. 상승이 있으면 하락 이 분명 존재하고, 불타오르는 시점이 있 으면 추락하는 계절이 있기 마련이다.

될 수 없다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로 요약되는 분산 투자 원칙은 꼭 지켜야 한다. 물론 위험뿐 아니라 이익도 분산되기 때문에 '크게 벌기 위한' 게 아 니라 '크게 잃지 않기 위한' 방법임에 분 명하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장세에서 무 엇보다 최우선 순위로 지켜야 하는 투자 원칙이라고 확신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평민'인 개인투 자자가 '박사급'인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 다. 다만 이들에 비해 비교 우위에 있는 몇 가지 사실을 활용하면 승률을 높일 수 는 있다. 대표적인 강점으로 언젠대 본인 의 의사에 따라 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세에 휘 돌리지 않고 마음이 편해야 하는데, 정반 대로 '나만 빼놓고 급등하면 어찌지'라고 생각하는 조급증이 문제다. 쉬는 것도 투 자다. 기다리면 반드시 기회는 누구에게 나 같은 시점에 오기 마련이다.

mywish73@

사설

삼성전자 50년 신화, 앞에 놓인 위기

삼성전자가 어제 창립 50주년을 맞 았다. 1969년 1월 13일 설립 이래 첫 해 3700만 원의 매출액은 2017년 162조 원으로 437만 배, 영업이익은 적자에서 34조8570억 원으로 늘었 다. 국내 직원 수는 36명에서 10만 3000여 명으로 2800배 증가했다(한국CXO연구소). 국내 최대 기업을 넘어 세계 최고의 제조업체로 올라섰 다.

삼성전자 50년 성장사는 한마디로 신화(神話)다. 일본의 3류 가전업체 산요로부터 어떻게 기술을 배워와 20여 년 전까지도 미국·일본 양판점 구석에 처박힌 싸구려 TV나 만들었다. 그러나 1993년 '신경영' 이후 소 니와 파나소닉의 30년 '전자왕국'을 무너뜨렸고, 난공불락의 노키아 휴대 폰과 스마트폰 원조 애플도 제쳤다. 지난 수십 년 세계 반도체 왕좌를 지 켜던 인텔의 아성까지 허물면서 반도 체산업 역사를 다시 썼다.

삼성의 오늘날 성취를 이룬 원동력은 경영학적으로 특유의 '삼성웨이(Samsung Way)'로 분석된다. 기존 경영이론에서 양립이 불가능해 보 였던 상반된 가치를 함께 실현한 '패 러독스(逆鏡) 경영'의 성공 사례로 도 꼽힌다. 거대 조직의 약점을 극복 하는 강력한 오너십의 빠른 의사결 정, 다각화와 전문화를 동시에 달성 한 시너지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이 항상 절박한 위기의 식으로 무장한 고강도 지속적인 혁신과 투자, 제품·서비스의 세계화 전 략이었다.

삼성을 빼놓고 한국 경제를 말할

수 없다. 삼성전자 한 회사가 우리나 라 제조업 전체 매출의 12% 이상, 수출의 약 30%, 법인세수의 13.1% (2017년)를 홀로 떠맡고 있다. 주식 시장 시가총액 비중도 20%를 넘나든 다. 삼성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자산 이자 버팀목이다.

하지만 삼성은 지금 시련과 위기에 직면했다. 그동안 기적 같은 성장을 이끌어온 스마트폰의 퇴조가 뚜렷한 데 이어, 글로벌 경쟁업체들과 생사를 건 치킨게임을 이겨내고 승자의 자리에 올라선 반도체마저 흔들리고 있다. 초호황을 구가해온 반도체가 작년 4분기부터 실적이 급격히 둔화 하고 있다. 인공지능(AI), 5G, 바이 오 등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출발이 늦 은 데다 앞으로의 시장 상황도 녹록 지 않다.

삼성을 둘러싼 정치·사회 환경까지 걸림돌이다. 경이로운 성공이 오히려 족쇄가 된 상황이다. 적은 자본으로 거대 기업의 독재적 지배권을 행사한 다며 비판하고, 경영권 편법 승계, 정 경유착, 불공정 거래 등의 굴레를 씌 워 해체되어야 할 재벌 1순위로 꼽고 있다. 성취는 부정되고, 창의와 혁신 의 기업가정신은 설 자리가 없다.

삼성의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삼성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돌파구와 혁신을 다시 이끌어 내지 못하면 나라 경제의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도전해 야 할 목표,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자구 발목이 잡히고만 있다.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알쏭달쏭 말뜻 요지부동(搖之不動) 막무가내(莫無可奈)

요즘 우리나라 정치판은 '요지부동' 과 '막무가내'라는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요지부동은 搖之不動이라 고 쓰며 각 글자는 '흔들 요', '그것(this) 지', '아닐 불', '움직일 동'이다. 글자대로 풀이하자면 "그것을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之'는 흔히 '갈(go) 지'라고 혼동하지만 대명사로서 목적어 역할을 함으로써 '그것', '이것', '저것' 등 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글자이다. 자극을 주 며 흔들어도 전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태가 곧 搖之不動이다.

막무가내는 '莫無可奈'라고 쓰며 각 글 자는 '없을 막', '없을 무', '가할 가', '어 찌 내'이다. '막무(莫無)'는 '없다'는 뜻 이 겹쳐 있기 때문에 자칫 이중부정의 의 미로 파악하여 '없지 않음'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때의 '莫'은 '그보다 더한 것이 없다'는 의미이다. '막대한 손실', '막대한 영향' 등에 사용된 '莫'이 바로 그 러한 예인데 '莫大'는 '크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클 수 없다'는 뜻인 것 이다. '無可奈'만으로도 이미 '어찌할 수 없음'이라는 뜻인데 그 앞에 '莫'이 붙어 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어찌할 수 없음'이라는 뜻이 되었다. 그러 므로 국어사전은 '莫無可奈'를 '도무지 어 찌할 수 없음'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요지부동으로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면 결코 조화로운 정치를 할 수 없는데 우리 정치판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을 해줘도 상대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 고 막무가내로 자신의 주장만 하는 정치 인이 수도룩하다. 막무가내의 주장을 통 해 각종 구설에 휘말림으로써 오히려 자 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noise marketing)'을 하는 정치인도 있다. 참 불쌍한 사람이 다. 요지부동으로 막무가내의 주장을 하 는 정치인들을 잘 보셨다가 총선 때에 반 드시 엄중한 심판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 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구성현의 약자地꼐



사회경제부 차장

신도시가 만능열쇠는 아닌데

3기 신도시 정책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3기 신도시 후보지 중 규모가 가 장 큰 남양주 왕숙지구 인근 다산신도시 주민들은 집회까지 하면서 반발하고 나섰 다. 정부가 제안한 교통 대책이 부족하다 는 것이다. 나머지 지역들의 반응도 다르 지 않다.

신도시 조성 당시 약속했던 대책들 중 이행되지 않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점을 보면 이들의 반발이 이해 안 되는 것 은 아니다. 그나마 1기 신도시 서울 도 심에서 반경 20km 이내로 가까운 데다 워낙 대규모로 조성된 탓에 교통망이 빠르 게 확충됐지만, 2기 신도시의 경우 당초 계획했던 교통 기반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출근길이 매년 전쟁이다.

실제로 대표적인 교통 개선 정책으로 꼽히는 GTX만 하더라도 GTX-A 노선 이 2023년 준공이고 나머지 GTX-B노 선, GTX-C노선은 개통 예정 시기가 각 각 2025년, 2026년으로 3기 신도시의 입 주 예정 시기(2021년)를 넘어선다. 이마 저도 모든 사안이 예정대로 진행됐을 경 우다.

이번 기회에 신도시에만 의존하는 주거

정책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신도시에 대한 의견을 나눌 때 면 '아빠만 고생하면 나머지 가족들이 행복하'구'이란 표현이 자주 쓰인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사람이 나머지 가족을 위 해 출퇴근의 불편함을 감수하면 다른 가족들이 쾌적한 환경과 넓은 거주 여건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때문에 경제 성장기, 외벌이 가정 중심 일 때인 과거 1980~1990년대엔 신도시가 내집 마련과 투자적인 매력을 동시에 갖 춘 모델로 적합했다. 하지만 한국이 저성 장 국면에 접어들고 맞벌이가 필수가 된 시점에 신도시가 집값 안정과 공급책을 아우르는 주거 정책의 구원투수로 등반하 는 점이 적합하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 요가 있다.

때문에 3기 신도시 자족 기능을 높인다는 방안을 내렸지만 자족 기능은 말로 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직장인 도심권에 있는 상황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우리 아이들에게 낡은 구(舊)도시만 잔 득 물려줄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신(新)도시 정책을 다시 정립해야 할 것이 다. carlove@

이투데이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당신만의 영역을 찾아서 PALISADE

팰리세이드 출시



Always Remarkable
PALISADE



bluehands
차량관리 서비스는 bluehands가 책임지겠습니다
회원혜택: 블루점검 케어서비스/긴급출동/블루포인트/연인서비스

■ 구입 문의전화 및 고객센터, 긴급봉사반 원콜 서비스 080-600-6000 ■ 정부 공인 표준연비 ▶ 디젤 2.2 AWD 자동 8단(18"): 복합 11.8km/ℓ(도심:10.9km/ℓ, 고속도로:13km/ℓ) | CO2 배출량 163g/km | 배기량 2,199cc | 공차중량 2,010(인승), 2,020(8인승) | 8단 DCT(3등급) ▶ 디젤 2.2 AWD 자동 8단(20"): 복합 11.5km/ℓ(도심:10.8km/ℓ, 고속도로:12.6km/ℓ) | CO2 배출량 167g/km | 배기량 2,199cc | 공차중량 2,020(인승), 2,030(8인승) | 8단 DCT(4등급) ▶ 디젤 2.2 2WD 자동 8단(18"): 복합 12.6km/ℓ(도심:11.9km/ℓ, 고속도로:13.8km/ℓ) | CO2 배출량 151g/km | 배기량 2,199cc | 공차중량 1,945(7인승) | 8단 DCT(3등급) ▶ 디젤 2.2 2WD 자동 8단(18"): 복합 12.4km/ℓ(도심:11.6km/ℓ, 고속도로:13.6km/ℓ) | CO2 배출량 155g/km | 배기량 2,199cc | 공차중량 1,955(8인승) | 8단 DCT(3등급) ▶ 디젤 2.2 2WD 자동 8단(20"): 복합 12km/ℓ(도심:11.2km/ℓ, 고속도로:13.3km/ℓ) | CO2 배출량 160g/km | 배기량 2,199cc | 공차중량 1,955(7인승), 1,965(8인승) | 8단 DCT(3등급) ▶ 가솔린 3.8 AWD 자동 8단(18"): 복합 9km/ℓ(도심:7.9km/ℓ, 고속도로:10.6km/ℓ) | CO2 배출량 191g/km | 배기량 3,778cc | 공차중량 1,940(7인승), 1,950(8인승) | 8단 DCT(5등급) ▶ 가솔린 3.8 AWD 자동 8단(20"): 복합 8.9km/ℓ(도심:8.0km/ℓ, 고속도로:10.4km/ℓ) | CO2 배출량 192g/km | 배기량 3,778cc | 공차중량 1,950(7인승), 1,960(8인승) | 8단 DCT(5등급) ▶ 가솔린 3.8 2WD 자동 8단(18"): 복합 9.6km/ℓ(도심:8.5km/ℓ, 고속도로:11.4km/ℓ) | CO2 배출량 178g/km | 배기량 3,778cc | 공차중량 1,870(7인승), 1,880(8인승) | 8단 DCT(4등급) ▶ 가솔린 3.8 2WD 자동 8단(20"): 복합 9.3km/ℓ(도심:8.3km/ℓ, 고속도로:10.9km/ℓ) | CO2 배출량 184g/km | 배기량 3,778cc | 공차중량 1,880(7인승), 1,890(8인승) | 8단 DCT(5등급)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급출발,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않습니다. ※ 정속주행을 합니다. ■ 현대자동차는 자랑스러운 카마스터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도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빠른 거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